피할수 없다면 녹색하라

2016 녹색연합 지속가능 보고서

소개

녹색연합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녹색연합이 25년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해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백두대간 보전, 탈핵, 야생동물보호, 로드킬 저감, 군기지 환경감시, 4대강 모니터링 등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했습니다. 회원 확대와 회원 참여활동, 활동을 위한 모금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2017년 녹색연합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16년 활동을 보고 드리면서 동시에 잠시 숨을 돌려 더 나은 녹색운동을 향한 그림을 그리고자 함입니다. 녹색연합과 연결고리를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 분석하고 녹색연합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과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문제들을 회원그룹과 협력파트너와 인터뷰, 전문위원 간담, 활동가 과제별 워크샵 등을 통해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녹색연합이 의미 있는 변화를 추동하려면 무엇을 채워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고받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녹색연합 강령에 있는 생명, 평화, 연대, 공존 등은 가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얻었고 녹색연합의 활동, 운영 모든 과정에 녹색다움의 실질적 지침을 구성하여 구체화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함께 만들고, 차별금지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소통 가능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며, 녹색운동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사회변화 책임을 위해 연대하고 새로운 '다른 시도'를 꾸준히 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활동가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개개인이 활동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참여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시민들의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녹색연합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활동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생생한 활동 현장에 자리합니다. 때로 진지하게, 때로 신나게 긴 호흡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유의미한 활동을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연합은 다시 한 번 성큼 한걸음 내디딜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에는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생명운동의 깃발을 들고 뭉쳤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이다. 녹색은 다양성 존중과 생태계 순환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숲과 나무, 하늘과 바다, 물과 갯벌, 우주에 깃든 존재는 우리와 한 생명이다.

우리는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시민참여와 생활자치를 통해 녹색정치의 기틀을 만든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세상을 만들고자 우리의 지혜와 땀을 모은다.

우리는 사회 약자와 미래세대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한다. 또한 모든 생명을 섬기며 평화의 뜻을 나누며,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다.

생명존중

-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며, 생명체가 인간과 시장 중심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며,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여 육체, 정신, 영의 건강을 되찾는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생태계,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문화를 오래된 미래로 존중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
- 우리는 절제된 녹색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극복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녹색인 수칙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섬김과 나눔, 아낌과 보살핌을 실천한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한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
미래세대와 약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느리게 산다.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연에 든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과정을 중시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만들어간다.

수칙제정 2001.6.23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 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빈민, 여성, 지역주민 등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강령제정 2000.4.1.
강령개정 2001. 6.23

조직소개

녹색연합은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평화, 녹색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녹색생명운동을 펼칩니다. 서울에 본부 사무처를 두고 전국 9개 지역 조직, 4개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각 조직은 <녹색연합 강령>과 <정관>을 바탕으로 회원총회, 전국운영위원회, 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를 통해 연합하고 있지만 재정과 활동은 독립된 고유의 개별 조직이기도 합니다.

녹색연합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원총회에서 활동 평가와 계획을 승인 받고 있으며 활동내용과 재정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는 정례적인 사무처 회의, 중앙집행위원회, 활동가협의회, 전문위원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활동 방향을 세우고 집행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록 등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보고범위는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활동과 재정)와 녹색연합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조직의 운영체계를 담습니다. 전문기구(활동)에 제한하고 있지만

조직 개요

창립일 : 1991년 6월 7일
공동대표 : 김혜애, 박그림, 원정, 유경희
고문 : 노융희, 윤경은
감사 : 박종화(회계감사)
이영기(운동감사)
전문위원 : 권승문, 김영준, 김제남, 김진홍, 남상민, 박경화, 서재철, 석광훈, 송주영, 오기석, 오충현, 우수영, 윤전우, 이대택, 이병천, 이원두, 이유진, 임상혁, 정용철, 최송현, 최승국, 최현명, 한상민, 홍기정
홍보대사 : 김미화

사무처장 : 윤상훈
협동사무처장 : 양흥모, 정명희
사무처 : 조직팀, 회원더하기팀, 정책팀, 상상공작소, 자연생태팀, 평화생태팀,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 강승남, 김세영, 김수지, 김순남, 노수진, 문은정, 박수홍, 박효경, 배보람, 배선영, 배제선, 서재철, 신근정, 신수연, 신지선, 신화자, 윤기돈, 윤소영, 이다솜, 이용희, 이재구, 이현우, 임태영, 정규석, 최승혁, 최위환, 한만형, 허승은, 황인철, 황일수
시민모임 : 녹색친구들

전문기구
녹색교육센터
이사장 : 박영신
소장 : 정미경
활동가 : 김나혜, 최윤선, 정윤숙, 송송이

녹색법률센터
소장 : 우경선
부소장 : 신지형
활동가 : 이인숙

녹색사회연구소
이사장 : 박경조
소장 : 최종덕
사무국장 : 박정운
연구원 : 임성희

작은것이아름답다
발행인 : 윤경은
글모듬지기 : 김기돈
글보듬지기 : 정은영

회원총회

고문 | 공동대표 | 감사

전문위원 | 전국운영위원회 | 광양만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대전충남 / 부산 / 설악 / 원주 / 인천 / 전북

녹색사회연구소 | 중앙집행위원회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녹색법률센터

녹색교육센터

본부사무처

녹색은
다릅니
다

활동총평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 세상으로 전환, “녹색은 다릅니다”

2016년,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4년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듭니다. 경찰 공권력은 농민의 생존을 외치는 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하면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강행한 사드배치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역시, 안전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6년 전, 후쿠시마의 비극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주 지진으로 우리는 한국도 역시 ‘핵 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경각심을 느낍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을 넘어 사고기업의 징벌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환경운동사에 기록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10년 논란과 갈등이 환경영향평가서가 불승인되면서 종식되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승인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원 합의로 부결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핵발전소와 관련한 유례없는 판결을 내리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2016년 설악산 케이블카 대응을 위한 부서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 두 번의 사업 신청이 부결되었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운명의 추를 돌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불가 결정은 환경운동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녹색연합은 핵발전소 위험을 알리고 탈핵을 위한 지역 에너지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전국 녹색연합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고기 이동권 캠페인을 4대강에서 동시에 실행했으며,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정책 종식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을 빠짐없이 기록하였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주요 제안으로 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0년 만의 폭염, 고산식물 집단고사 등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양구조센터 건립을 위해 경북 울진군, 문화재청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정화 요구도 주요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용산 걷기 프로그램인 ‘담벼락 투어’를 시민들과 함께 하였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모니터링도 지난 10년 동안, 녹색연합이 실행한 주요한 성과입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의 주목할 만한 환경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녹색은 다양성 존중과 생태계 순환에 바탕을 둔다”는 강령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녹색의 가치를 위해 활동한 활동가들의 노력에 회원과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지지하리라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녹색연합은 진심어린 소통과 관계로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핵발전을 멈추고 탈석탄의 생태적이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끌 것이며, 영하 23도의 날씨에도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고산침엽수의 집단 고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녹색경제의 대안 모델을 만들고 자본주의 이후의 ‘녹색 세상’을 상상합니다. 녹색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은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도 바닥에 엎드린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생명존중

임태영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산양 구조·치료센터 설립,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2016년은 녹색연합 울진·삼척 산양보호활동에서 큰 성과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책정이 울진군의회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울진군 부지매입비 예산 통과를 위해 울진군 문화재팀과 달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문화재청에도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을 이장단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울진군 의원들에게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국산양보호협회울진지회와 울진에서 산양전시회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에서 산양보호활동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녹색연합·문화재청·울진군 간담회를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울진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울진·삼척 지역에서 서식하는 산양은 구조되어도 부근에 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 중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가 건립된다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산양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는 산양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산양 연구·교육·홍보 등 산양 보호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지매입 -> 울진군 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예산 신청 -> 문화재청 예산 교부 -> 실시설계용역 후 건립예산 신청 -> 예산 반영 및 센터 건립'

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비로소 울진 산양 구조·치료센터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활동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민단체와 지자체, 마을 주민의 협력과 오랫동안 산양보호활동을 후원해 온 이들의 관심 속에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활동

- 울진·삼척 산양 조사·구조와 무인센서카메라 설치·모니터링
- 2016.05.13. 울진군의회 산양구조·치료센터 부지매입 예산 승인
- 2016.07.13.~21. 야생동물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진행

2017년 계획

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울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울진·삼척지역 산양 전수조사를 통해 산양서식지 변화상과 위협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은 적은 인원으로 꾸준히 활동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등 정부·지자체와 정책을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충현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더 이상 사육곰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존중
최승혁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지난 2014년, 2015년 웅담채취용 사육곰 중성화 수술에 이어 2016년 모두 5곳 농가 사육곰 21개체가 중성화 수술을 마쳤습니다. 증식금지 협약서에 서명하고 참여한 모든 농가의 사육곰 중성화 수술이 완료됐습니다. 증식 금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 농가는 사육중인 곰 14개체를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981년 곰 사육이 시작되고 36년만의 일입니다. 더 이상 웅담채취용으로 사육되기 위해 태어나는 곰은 없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육곰 산업의 종결을 뜻합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함께 일하는 World Animal Protection(이하 WAP)와 녹색연합은 우리나라의 곰 사육 역사, 곰 사육 정책 폐지 활동, 사육곰대책위원회를 통한 사육곰 증식금지사업 등 36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사육곰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곰 사육 역사를 정리하는 한편 국제적 홍보를 통해 여전히 웅담채취가 일어나는 다른 국가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전시용 곰 불법 도축이나 사육곰으로 불법 전환, 농가의 곰 사육 시설 노후화 등 해결하고 방지해야 할 여러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관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2016년 활동

- 2016. 6. 13. 사육곰대책위원회 회의 : 2016년 사육곰 증식금지사업 착수보고
- 2016. 7. 1-3 사육곰 중성화 수술 모니터링 : 총 5개 농가, 19개체 수술 완료
- 2016. 6 ~ 7 오르컴퍼니(곰기름 함유 화장품 판매) 대응과 모니터링
- 2016. 9. 6. 사육농가 방문 사육현황 모니터링
- 2016. 11. 1. 사육곰대책위원회 회의 : 사육시설 점검 전수조사 논의
- 2016. 12. 10. 사육곰 중성화 수술 : 1개 농가 2개체 수술 완료
- 2016. 11 ~ 사육곰 백서 제작

2017년 계획

사육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육시설과 전수조사 결과를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사육곰 증식금지사업 완료를 알리는 사육곰 백서를 제작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곰과 기타 야생동물 제품에 관한 인식과 수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증식금지 이후 농가 상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성화 프로그램은 마무리 됐고 우리는 이 잔인한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녹색연합, 전국사육곰협회,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포함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웅담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나아가면서 아직 농가에 남아있는 곰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길버트 사페
WAP 야생동물 프로그램
캠페인 매니저

"Road In Peace"
로드킬 없는 남한산성

녹색연합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과 '로드킬 없는 남한산성 만들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한산성면에서 로드킬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예술인과 로드킬 굿즈를 제작, 배포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로드킬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10월에는 예술인과 남한산성 주민 30여 명이 참여하여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 35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로드킬로 죽어간 동물들을 애도하는 퍼포먼스 등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남한산성면 앞에 로드킬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한산성면과 협력은 전국에 로드킬 제로 구간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로드킬을 줄여보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로드킬 사고 데이터를 확보하여 로드킬 사고 다발지역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한편 생태통로 등 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로드킬 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로드킬 제로 캠페인과 함께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어진다면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마을'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로드킬 사고는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경고 안내가 부족했고 사고가 일어난 이후 이를 대응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은 로드킬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함께 로드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킬 제로 캠페인과 함께 로드킬 신고지도 앱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6년 활동

- 남한산성면 내 43,45번 국도와 342번 지방도 로드킬 사고 모니터링(7월~9월, 15회)
- 2016. 9. 8 남한산성면과 '로드킬 없는 남한산성 만들기' 협약식
- 2016. 10. 8 남한산성 인근 '로드킬 없는 남한산성 만들기' 캠페인

2017년 계획

로드킬 신고지도 앱 서비스를 제작하여 남한산성면을 포함 광주시의 로드킬 신고 데이터 수집하겠습니다. 수집된 로드킬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자료로 가공하고 근거자료를 토대로 로드킬 사고 다발지역에 대안을 마련하고 로드킬 제로 캠페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로드킬 캠페인을 6개월가량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로드킬'이라는 단어는 익숙해도, 그에 관련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생태축 조성과 관련한 활동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이러한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로드킬 채널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산간지역이나 고속도로 외에도, 도시에서 벌어지는 로드킬 통계들도 공유가 되면 로드킬이 얼마나 일상과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일인지 도시 사람들도 더욱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민경
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

우리 모두의 설악산을 지켰습니다

2016년 녹색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를 막고 설악산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친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도는 다행히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세 번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신청을 조건부 허가해 주었습니다. 환경부가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정한 국립공원을 포기한 셈입니다. 환경부의 이런 결정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방편이 되었고 2016년 말 케이블카 추진 배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뒤, 녹색연합은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산악계 등과 연대하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를 결성하고, 2016년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기 위해 각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응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1만인 서명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날 비박농성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 고공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는 설악산을 망친 주역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도 펼쳤습니다. 설악산케이블사업 부당성을 고발하는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고군분투의 결실이 12월28일 찾아왔습니다. 국립공원 위원회의 허가결정으로부터 정확히 1년4개월이 되던 이 날,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한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모든 분야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양군과 환경부의 논리를 일축하고,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도는 끈질기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1982년에도 강원도와 건설교통부가 두 차례나 시도하였지만, 문화재위원회는 모두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4년 전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2016년에 다시 내려졌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설악산의 정상부, 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까지 거대한 철탑을 박아서 관광객들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생태계 보전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다른 산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결정 이후 지리산, 속리산 등 전국의 30여 곳에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케이블카 계획이 이를 반증해 줍니다. 따라서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은 환경운동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입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명산과 보호지역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진한 개발 사업을 막아낸 것은 커다란 성과입니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운동을 통해 사회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진 것도 큰 결실입니다. 특히 양양군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이 케이블카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된 점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케이블카 부결 뒤에는 촛불의 힘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정치적 국면이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국정농단 심판과 함께 국토농단, 환경농단을 막아낸 셈입니다. 많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의 불씨를 이어온 녹색연합의 활동은, 케이블카 부결의 밑거름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은, 국토의 1%에 불과한 핵심 보호지역조차 개발논리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낸 결실은, 이 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힘겨운 길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2016년 활동

- 2015. 8.28.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계획 조건부 가결
- 2015. 9.14. 환경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고시
- 2015. 1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 개 단체 참여
- 2015. 10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5. 10월 강원도청 앞 농성 시작
- 2015. 10월 국정감사, 설악산 케이블카 주요이슈로 다룸
- 2015. 11.9. 경제성 보고서 조작 양양군 관계자 형사 고발
- 2015. 11월 설악산 시민탐방 천인행동 시작
- 2015. 12.7. 국회 환노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요구
- 2015. 12.9.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최소소송 접수
- 2015. 12.24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16. 1.12 원주지방환경청 비박 농성 시작
- 2016. 1.25 원주지방환경청 고공 퍼포먼스
- 2016. 1-3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1인 시위
- 2016. 2.2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통보
- 2016. 3-4월 국회의원 선거 대응 낙천낙선 운동
- 2016. 3-4월 환경영향평가 1,2차 주민 공청회
- 2016. 4-5월 설악산 현장조사 (산양 등 포유류)
- 2016. 4.28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소송 첫 재판
- 2016. 5-9월 설악산케이블카 취소 1만인 서명
- 2016. 6월 설악산 현장조사 (식물)
- 2016. 7.26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6. 7.26 검찰, 경제성보고서 조작 혐의로 양양군 관계자 기소
- 2016. 7.26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 촉구 신문광고
- 2016. 7.27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집중대응행동
- 2016. 8.11-28 박그림 대표 설악산 사진전
- 2016. 8.24.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집중대응행동
- 2016. 8.28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허가 1주년 전국 국립공원 동시 캠페인
- 2016. 8-10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진행
- 2016. 9.1 설악산 양양문화제
- 2016. 10월 국정감사, 설악산 케이블카 주요이슈로 다룸
- 2016. 10월 설악산 케이블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관 의혹 제기
- 2016. 11.4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보완 통보
- 2016. 11월 설악산 현장조사 (매목)
- 2016. 11월 빅워크 캠페인 시작
- 2016. 11.21 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설악산 오색지구 수상
- 2016. 12월 2017년 예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국비 미배정
- 2016. 12.1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형사고발
- 2016. 12.26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2016. 12.28 문화재위원회 3차 심의, 집중대응행동 – 심의결과 : “부결”

2017년 계획

설악산케이블카는 막았지만 규제 프리존, 산악관광활성화 등 우리 국토와 자연을 막개발 위험으로 몰아넣을 폭탄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번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국토의 1%에 불과한 핵심 보호지역조차 개발논리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실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새로 들어서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를 만들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마이산, 유달산 등 각 지역의 명산에도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막아낸 것에 그치지 말고 이후 후속과정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

배성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백두대간 보전 관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줄기(1400km)입니다. 한반도 전체 식물종의 33%가 서식하며 특산식물의 27%, 희귀식물 17%, 야생동물 약 560종이 서식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야생동식물의 핵심 서식지이며 산림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립공원 8개소를 포함해 6개 도 32개 시에 걸쳐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대한 생태벨트로서, 2003년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 물리적 공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2001년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마루금 등산로를 1차 조사하였고, 보호지역 지정 10년이 되는 지난 2015년 같은 구간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사했습니다. 200m마다 한 번씩 노폭, 침식깊이, 뿌리의 노출 정도 등을 실측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10개월 간 분석하였고, 결과를 2016년 8월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10년 동안 오히려 '나지'가 약 21.8%나 늘었습니다. 백두대간 위에 '풀 한포기 없는 땅'이 국제축구경기장 107배가 넘는 규모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인 허리까지 땅이 깎여 내려간 극심한 훼손지도 약 7%나 되었습니다.

2년간의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보호대책을 정부에 촉구하였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녹색연합이 백두대간 훼손실태를 발표한 뒤 열흘 만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책임자인 산림청이 이례적으로 정부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진행하였으며 "한반도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 정비와 개정으로 보호 방안 확립, 산림청 내 백두대간 전담 조직 강화, 백두대간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태관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방안 마련을 공언했습니다. 백두대간 훼손실태 조사는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 방안을 확립하도록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보호대책을 를 잘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2016년 활동

- 2016년 1월~7월 백두대간 훼손실태 조사자료 분석과 추가 조사
- 2016. 8. 1. 보도자료 배포, 방송 3사, 주요 일간지 등 보도
- 2016. 8. 10. 산림청 정책브리핑 발표

2017년 계획

백두대간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도록 백두대간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만큼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백두대간 훼손지도를 제작하여 산악회 등과 협력하여 대중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보호지역과 생활권이 가까워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정책변화 뿐만 아니라 등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대중 홍보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번 녹색연합의 조사는 어디서도 하지 못하는 매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이와 같은 탐사보도가 많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서재철
전문위원

물고기에게 이동할 권리를!

2016년 4대강 활동 키워드는 ‘단절’과 ‘생명의 이동권’이었습니다. 4대강의 여러 가지 생태 문제 가운데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는 강의 모습을 조사하고 알리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수생생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강이 품은 여러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담수생태계를 위한 재자연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의 하천에 설치된 보는 2016년 기준으로 33,842개이고, 이 가운데 5,857개, 즉 17.3%에 달하는 보가 파손된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용도를 다하였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댐이나 보 등 강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을 철거하고 건강한 강을 위해 재자연화를 진행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새로운 댐이나 보를 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물을 생명이 아닌 자원으로만 여기고, 모든 문제를 토목공사로 해결하려는 토건만능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이 생태적 단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녹색연합은 ‘물고기 이동권’ 보장 활동을 위해 회유성 어종 산란기 이동 조사와 4대강 본류의 국지적 물고기 이동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낙동강과 새만금의 어민을 만나 4대강 사업과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진 상황을 인터뷰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현장 소식을 토대로 사진과 영상, 글 등의 콘텐츠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한국 단체로는 처음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물고기 이동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을 서울, 인천, 대전, 광양만, 광주, 부산, 전북 등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물고기 이동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물고기택시’ 패러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참신한 콘텐츠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이제껏 생각해보지 않았던 물고기 이동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 한 해였습니다.

2016년 활동

- 3월 <물고기택시> MV 제작, 배포, 섬진강 황어(회유성 어종) 산란기 이동 모니터링
- 4월 금강 본류 물고기 이동 모니터링
- 5월 낙동강 본류 물고기 이동 모니터링
- 5월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전국 캠페인
- 6월 낙동강 어민과 물고기 이동, 서식 문제 인터뷰
- 7월 새만금 어민과 방조제로 인한 서식처 단절 문제 인터뷰
- 11월 남대천 연어(회유성 어종) 산란기 이동 모니터링과 언론 작업

2017년 계획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법이 왜곡되고, 친수구역특별법 등 우리 강을 망치는 법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입법, 기존 법 제도 정상화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사회적 담론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기획 기사와 온라인콘텐츠 제작으로 이 소식을 알리고,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으로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어류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보로 인한 어류이동 제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에 어류 이동로가 있는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이동성은 충분·가능한지, 어떤 점이 미흡한지 등 심층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철거는 어떤 보부터 철거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재자연화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홍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 / Plant 공학과

신근정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탄핵 다음은 탈핵

2016년 녹색연합 탈핵운동은 현안지역, 대안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핵 발전 정책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돕고, 대안을 실천하는 주민들이 탈핵활동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와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기장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채취, 담수화해 주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한다는 결정이 나자, 기장 주민들은 반발했고, 주민투표로 찬반여부를 묻기 위해 환경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5년 영덕에서 신규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지원한 경험을 살려 녹색연합은 한 달 여에 걸친 준비와 이틀간의 주민투표를 지원했고, 주민들은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에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도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에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를 새로 짓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 60년으로 2024년 완공되면 2084년까지 운영되고, 8조 5천억 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최대 용량의 핵발전소입니다. 두 달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녹색연합은 그동안 관계 맺고 있던 에너지자립마을들과 함께 건설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마을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애쓰는 에너지자립마을들은 '우리 동네 에너지자립은 우리가 책임질게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은 나라가 책임져라'라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들은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핵발전소 가동중지 기자회견에도 참여했고, 판도라 영화 함께 보기 활동도 벌였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며 환경, 시민단체들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탈핵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지에는 핵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수명이 다된 핵발전소를 연장해 쓰지 말고, 핵발전소에서 나온 위험한 핵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과 제대로 상의하고, 새로 들어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담았습니다. 녹색연합도 절전소 운동을 함께 하는 자치단체와 마을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행사장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2016년 활동

- 부산 기장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지원 (2월~3월)
- 부산 신고리 5,6호기 신규핵발전소
- 건설허가 반대 활동(5월~7월)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 (10월~12월)
- 다큐 '30km' 공동체 상영회, 달마다 탈핵이슈 카툰 제작, 배포

2017년 계획

국가가 핵발전소를 지원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핵 발전을 홍보하는 원자력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핵발전소의 숨어있는 비용(폐로비용, 사고비용, 핵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에너지문제를 잘 알리기 위해 시민들과 '탈핵 현안' 현장을 방문하고 백만탈핵서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탈핵운동을 지원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에너지전환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탈핵운동을 이끌어 갈 큰 흐름을 만드는 역할도 필요할 듯 합니다."

최승국
전문위원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마을현장과 행정을 잇고, 대안과 현안을 잇는 녹색연합의 탈핵활동은 티끌모아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소영
회원
성대골사람들, 마을닷살림 대표

김순남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시민들의 삶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합니다

에너지만큼 정부의 중앙 집중식 통제를 받는 정책이 또 있을까요? 어떤 발전원으로 전기를 공급할지, 이에 따라 핵발전소 몇 개를 어디에 더 지을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계획할지, 에너지 가격(세금)을 조정하여 어떻게 지원할지, 모두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중앙 집중 방식의 에너지정책은 광역, 기초 단위의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모순과 부정의를 만듭니다. 전기가 모자란다고 고리 신규 핵발전소 5,6호기를 승인했지만 실제 정부의 전력수요예측 실패로 작년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LNG가스 발전기 가동률은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영덕은 지역 내에 있는 풍력발전단지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할 전기를 생산해 내지만 또 다른 발전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다소비 지역인 서울의 에너지자립율은 5%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빠르게 전기화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생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녹색연합은 지역 에너지자립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실감나는 성북 절전소' 활동을 진행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개소에서 시작한 성북 절전소는 2016년 61개소로 해마다 10개소 이상씩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2천154 세대에서 2016년 말에는 약 2만7천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북절전소가 절감한 전기양은 46만 인구의 성북구가 절감한 전기양의 1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녹색연합은 해마다 성북 절전소 회원들과 성북구의 에너지다소비 주체들을 모아 한 해 줄여야 할 에너지절감 목표치를 정하고 성북구의 주민참여 에너지정책 사업 방향을 제안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절전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새롭게 서초구와도 협약을 맺고 에너지전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교재를 만들었으며, 서초구 모든 통장들에게 에너지교육을 하고, 서초구 3개 권역에서 에너지특강도 했습니다. 에너지전환 활동이 지역에서 정책과 제도가 되도록 전국에서 지역에너지전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하였으며 교육 내용과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에너지문제는 행정만으로 제대로 된 성과도, 지속적인 활동도 어렵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로 실행되어야 에너지전환을 위한 성과도, 시기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민역량강화, 시민조직화는 에너지기후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2016년 활동

- 성북구 녹색환경실천단 에너지교육 총8회 (10월~12월)
- 성북구 실감나는 절전소활동(1월~12월)
- 서초구 나비절전소활동(5월~12월)
- 2016. 7. 20~22 지역에너지학교
- 2016. 11. 12 학교절전소 진로체험 한마당 '꿈지락' 에너지 외 환경분야 직업체험 워크숍
- 2016. 12. 30 '지역에너지 활동가를 위한 정책화와 제도화' 지침서 제작

2017년 계획

6년째를 맞는 성북절전소 절전소장 절전소활동과 회원들을 위한 에너지교육, 워크숍, 구민컨퍼런스 등을 진행하며 절전소를 확대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높여갑니다. 2017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2018년 성북구 에너지절감을 위한 실천과제를 그려봅니다.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온 성북절전소의 경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으로 활동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녹색연합에서 동단위로부터 시작되는 지역에너지 활동이 자리를 잡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성북구를 넘어 서초구로 확산되는 것 또한 의미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동북4구 지역에너지센터 구축과 자치구 거점사업, 서울시 지역에너지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해 지역주민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실행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구성 등 앞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에서 녹색연합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유진
전문위원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산미군기지, 담벼락 너머의 환경문제를 들추다

서울 한복판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된 이후 공원으로 바뀔 계획이지만 그곳의 환경오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기지 내부에서 흘러나온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1군 발암물질 벤젠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500배 이상 검출됩니다.

녹색연합은 회원·시민들과 함께 용산 기지 주변을 걸으며 그곳의 환경과 생태 문제를 확인하는 참여프로그램 '담벼락 투어'를 10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용산 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다수 주한 미군기지는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지만, 기지를 돌려받기 전까지 오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사법부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항소하여 3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주권과 시민 알권리를 찾고, 환경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 관련 민관협의체(주민대책위, 녹색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령시, 충청남도)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군사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또한, 강정 활동가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 공동조사를 통해 해양생태 훼손을 알리고 중장기적 연산호 보호방안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활동

- 용산 회원 시민 참여프로그램 담벼락 투어 (4~9월, 10회)
-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소송 승소 : 1심(6월), 2심(12월)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5회)와 전문가워크숍(3회)
- 제주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공동 모니터링 3회(5월, 8월, 11월)

2017년 계획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 직접 행동, 정책 대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합니다. 또한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역학조사(민관협의체)를 진행하고,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보호 방안 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녹색연합이 꾸준히 다루고 있어, 녹색연합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군기지 오염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은 환경운동이면서 동시에 평화운동, 지역자치운동입니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고, 지역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 주민과 함께 힘차게 활동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기지 오염문제에 관련된 활동 부탁드립니다."

임상혁
전문위원
노동환경연구소 소장

국회를 또다른 현장으로 만듭니다

녹색연합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백두대간 깊은 골과 높은 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도시 그리고 시민들이 있는 광장 등 활동가들은 녹색세상을 그리며 곳곳을 누빕니다. 그리고 또 한 곳 현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녹색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를 만들고, 국가예산으로 구체화 하는 일들이 모두 국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4대강사업같이 녹색의 가치에 완전히 반하는 법제도들도 국회에서 만들어지니 감시하는 일 또한 소홀할 수 없습니다.

2016년 4월13일, 총선이 끝나고 녹색연합은 국회 정책대응을 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녹색연합뿐만 아니라 환경진영 전체를 아우르고, 그 모아진 힘으로 국회를 상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정 정당의 개별 의원실과 협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야당을 모아서 환경 진영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녹색세상을 위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모았습니다. 이것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16명 중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뺀 1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의원실을 엮는 일입니다. 몇몇의 의원실엔 그야말로 보따리 장수처럼 찾아다니며 보좌진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에 소속된 환경단체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들이 가진 주요 의제들을 우선 접어두고 우리 공동의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이 어떤 단체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득했고 결국 국회와 환경단체들의 공동 간담회를 시작해 국정감사워크숍, 국정감사공동대응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녹색연합이 한국환경회의 간사단체를 맡으면서 한국환경회의 내 정책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4대강의 재자연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고,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몰아내고, 탈핵으로 가는 길을 열어 제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2016년 활동

- 20대 국회 환노위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중요 협력의제 선정
  한국환경회의 내 정책대응 TFT구성
- 20대 국회 환노위 야3당과 한국환경회 간 국정감사 공동워크숍
- 설악산케이블카를 의제로 20대 국회 환노위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국정감사 공동대응
- 한국환경회의 내 정책대응 TFT를 공식기구인 정책대응소위원회로 상설화

2017년 계획

한국환경회의에서 정책소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정책대응활동을 더욱 폭넓게 진행합니다. 수립된 사업계획으로 대선 대응, 국회 대응, 행정부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환경활동가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대응은 국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진영에만 연대가 국한된다면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염두하고 있겠지만 더 넓게 더 큰 걸음으로 정책대응의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정용철
전문위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스포츠심리학 교수

김수지 /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녹색을 만나는 가지각색

어떻게 모든 생명이 함께 존중 받는 평화로운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요? 녹색연합의 현장 활동만으로 가능할까요? 녹색연합은 조금 더 먼저 자리를 마련하는 곳일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는 원동력은,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회원나들이와 어린이자연학교는 그 참여의 '시작'입니다. 도시의 모습과 생활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이 자연을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이었지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연이 왜 좋은지 모른다면, 자연 그 자체를 느껴보지 못한 이들이 녹색세상을 함께 꿈꿀 수 없으니까요. 시민들과 서울 성곽을 따라 그 속에 얽혀있는 문화와 자연을 만나고, 어린이들과 DMZ 숲에 2박 3일 머물면서 자연과 교감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이 아직 어렵다는 분들과 신입회원모임, 송년행사를 통해 녹색연합 활동과 회원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녹색연합의 활동현장으로 회원들과 출동해 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녹색현장 용산 미군기지 인근을 돌며 용산의 역사적 흔적을 살펴보고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문제와 해결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직접보고, 우리가 원하는 용산의 모습을 함께 그려갔습니다. 4년째 이어지는 '생태드로잉' 강좌도 봄·가을 열었습니다. 한 해를 갈무리 하는 회원 송년회를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소박하지만 흥겹게 나눴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동안 꾸준히 녹색연합을 응원하고 함께 걸어온 10년 회원님들을 위해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물론 그 고마움을 밥 한 끼로 대신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10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살면서 두고두고 꺼내 볼 추억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2016년 한 해 동안 26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진행 된 가지각색의 행사를 통해 함께 한 이들은 녹색연합 활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녹색연합과 연결고리를 만들며 녹색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어 녹색연합과 조금 더 친밀해 질 수 있도록 얼굴 비춰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 될 자리에서도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2016년 활동

- 신입회원의 날 : 봄(3/26), 여름(7/2), 가을(10/8) 회원들과 만남.
- 현장출동 용산 담벼락 투어(4/26, 5/28)
- 서울 성곽으로 떠나는 회원나들이 (4/30, 6/25, 9/25)
- 10년 회원모임 "10년 만에 지키는 약속, 밥 한번 먹어요" (6/11)
- 생태드로잉 강좌 (4월, 10월)
- 지구를 위한 청소년 자원활동 (5/28, 10/29)
-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캠프 어린이자연학교(8/10~8/12)
- 송년행사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대" (12/2)

2017년 계획

더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친근한 녹색연합이 되어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녹색연합을 바라는지,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녹색연합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탓에 고생을 좀 했지만 고생스럽게 자원활동을 했기에 더 기억에 남고 그래서 요즘은 더 지구에 대해, 환경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예진
청소년 자원활동 참가자

"막연히 환경에 대해 관심만 가지고 있을 무렵에 녹색연합을 알게 되고 조금씩 녹색으로 물들어 가는 제 삶에서, 그날의 모임은 앞으로 조금 더 용기 내고 힘을 내어 한 발자국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양자경
신입회원의 날 참가자

지구별 수많은 협력자가 이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

2016년 후원파트너와 함께 한 협력활동은 밖으로 넓혀 나가기보다 기존 협력자와 공동의 목표를 다시 살피고, 방법을 의논하며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해마다 4월 지구의 날 무렵에 열리는 '얼루어 그린 캠페인'은 벌써 6년째 녹색연합 산양보호활동 기금을 모아 지역의 변화를 만듭니다. 6년 동안 무려 133,734,114원의 기금이 울진 삼척 지역의 산양을 지키는 활동에 쓰였고, 이 결과 산양구조치료센터를 함께 만들자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백두대간 생태축 지키기도 '카카오 다가치펀드'의 협력으로 세 번째 마루금 훼손 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01년 조사 때보다 맨땅이 21%나 더 드러났음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ART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하루 판매행사를 열고,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작았지만 'ART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배분기관의 관심을 복지 분야에서 생태 환경 분야로 확장한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설악산을 케이블카로부터 지키는 활동에 파타고니아가 주도하는 '지구를 위한 1% 기금'을 지원받아 깊이 있는 생태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활동에 안정적인 기금을 지원할 협력자를 찾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불가 결정이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지구 위 수많은 협력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모금은 스토리 기획을 강화하고 홍보와 캠페인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로드킬 캠페인과 창작활동을 연계한 스토리펀딩의 성공, 빅워크와 캐시카우의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모금 시도, 요청과 권유로 꾸준히 늘고 있는 후원행사 개인후원자 수는 녹색연합 모금 방향을 바꾸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후원행사는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존위협으로 다가온 환경 문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염치있는 어른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과 기업 후원자의 참여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기금을 모아 녹색연합의 성장을 위해 소중히 쓰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스토리, 더디더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는 진정성은 녹색연합 모금의 변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2016년 활동

- 2016. 04. 05 한국도로공사, CJ대한통운, 산림청과 함께 탄소상쇄프로젝트 4년차 진행
- 2016. 04. 25 두산매거진 얼루어 그린캠페인 참여
- 2016. 06. 07~17 카카오 사옥 전시회 '백두대간 품다' 진행
- 2016. 07. 20 소니코리아 ART 프로젝트
- 2016. 09. 21 영수증 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 ㈜캐시카우와 후원협약 체결
- 2016. 09. 23~25 제2회 백패커스데이 캠핑 프로그램 홍보 부스 참여
- 2016. 10. 25 녹색연합 창립 25주년 후원행사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 진행

2017년 계획

온라인 콘텐츠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관계를 만들어 정기 후원 참여로 연결하는 시도를 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에게 활동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설득시키는 확성기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화된 콘텐츠로 관계를 시작하면 모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후원행사를 위해 다수의 모금위원들을 초청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모시고, 모금위원들의 적극적인 모금 요청이 돋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인 후원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경화
전문위원
환경책 작가

배움과 나눔으로 녹색세상을!

녹색교육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시민들과 건강한 녹색철학과 생활방식을 나누고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녹색교육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미래세대 녹색지킴이 교육', '녹색시민교육', '사회 환경교육 지원', '녹색교육 연구 및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활동을 성실하게 펼쳤습니다. 특히 청소년환경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인 <꿈꾸는 초록씨>를 통하여 길 찾기 과정에 있는 미래세대들에게 환경 분야로 관심과 진로모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충청권역의 15개 환경동아리를 발굴하여 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더불어 연 2회의 그린멘토 연계교육 및 여름방학 네트워크 캠프, 활동공유를 위한 보고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깊이 있는 환경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녹색진로(Green Job)를 고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녹색교육센터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녹색직업을 접할 수 있도록 '녹색직업(Green Job)'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 ·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녹색의 꿈을 꾸고 있는 '초록씨'가 새싹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어여쁜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녹색교육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활동

- 어린이 생태감수성 향상프로젝트 <와숲> : 2016.3~12, 16개 지역아동센터 참여
- 어린이 절기환경탐구단 : 2016.3~11, 15개 초등학교 참여
- 겨울야생동물학교 : 2016.1.13.~15
- 청소년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 <꿈꾸는 초록씨> : 2016.1~12, 15개 동아리 참여
- 녹색길라잡이 양성과정 : 2016.9~10
- 찾아가는 빗물공동체 교육 : 2016.5~7
- 가족환경자원봉사 : 2016.4~11
- 미래는 여는 녹색직업 '그린잡' 출판 및 홍보체험부스 운영, 야생동물 DIY 공책 만들기 키트 제작
- 사계절 나무여행, 청소년 환경봉사단 '숲틈' 운영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운영

2017년 계획

청소년 녹색진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내일은 그린잡>, 서울, 경기권역 지역아동센터 아동 숲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와숲>, 방과 후 환경학교 <절기 탐험단>, 겨울야생동물학교 등을 진행하여 미래세대 녹색지킴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녹색길라잡이 양성과정, 환경자원봉사활동, 빗물공동체 교육지원 등 프로그램으로 녹색시민 교육을 진행합니다.

"와숲과 함께 자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전진상
와숲 참가 어린이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야생동물을 탐구하는 활동은 조금 힘들었지만, 중간 중간 야생동물들의 똥과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다. 나는 여러가지 꿈이 있다. 배드민턴 선수, 프로그래머, 경찰, 과학자... 그 많은 꿈 중에 이번 캠프를 통하여 '야생동물수의사'라는 꿈도 새롭게 생겨났다."

노정환
겨울야생동물학교 참가 어린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새들이 깨끗해진 집을 얻게 되었을까?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창하지도, 엄청난 변화를 줄 만큼의 봉사활동은 아니었지만 도시화로 인해 집 지을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새들이 우리의 작지만 참다운 봉사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봉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김하민
환경봉사단 숲틈 참가 청소년

박정운 / 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녹색사회로 가는 정책근육을 키웁니다

녹색사회연구소는 경제성장 우선 논리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순환 사회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활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녹색사회연구소는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전망을 만들고 전국녹색연합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녹색사회포럼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녹색연합 본부와 정책협의를 하는 그린테이블을 운영해 정기적인 환경이슈 브리핑과 20대 국회 녹색입법과제, 2016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국녹색연합 3% 공동기금 지원을 받아 '보호지역 내 산악관광개발 문제와 국제 사회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정책'을 연구하였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 케이블카 추진을 비롯하여,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이란 이름으로 정치권과 재계, 지자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보호지역 내 대규모 산악관광개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리와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해 온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증진 활동과 보호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인천녹색연합, 백령도 청소년들이 함께 점박이물범 모니터링과 생태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이 백령도 청소년들의 특성화된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백령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동아리(가칭 점박이물범의 친구들)를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 : 손현준

2016년 활동

- Green Table : 환경이슈 브리핑, 20대 국회 녹색입법과제 발표, 2016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 녹색사회포럼 :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2016. 7. 14.)
- 전국녹색연합 하구포럼 : 9개 조직 참여. 포럼 운영 3회,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전국캠페인(2016.5.21.), 2016 강의 날 대회 하굿둑개방 컨퍼런스 진행(2016. 8. 11)
- 보호지역 내 산악관광개발 문제와 국제 사회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정책 연구(2016. 2. ~ 8.)
-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실태조사(2016. 4. ~ 12.)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에너지복지 시범동 운영 및 매뉴얼 제작(2016. 8. ~ 11.)
- 유전자조작농산물 국내외 법제도 비교분석(2016.10. ~ 2017.3.)
-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인식증진사업(2016. 5. ~ 11.)
- 후원의 밤(2016. 7. 20.)

2017년 계획

녹색사회연구소는 전국녹색연합의 정책역량 강화와 연구위원회 활성화를 바탕으로 연구소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연구 활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단되었던 한국 환경보고서를 재발간할 예정이며, 환경현안과 정책의제를 공론화하고, 통일 대비 남북환경협력 방안을 위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케이블카 추진 부결 이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호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점박이물범 생태학교는 지역 학생들이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특히 학교, 지역주민조직, 환경단체, 관련 기관 등 여러 단위들이 물범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을 견인해 내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녹색연합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겠습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환경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 진행된 가장 중요한 환경소송은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할 것이며, 상부 정류장 식생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첫 단계인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무효 확인 소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은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매우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2016년 총 4회 변론 진행, 2017년 첫 증인신문 예정).

2016년 환경소송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탈핵사회로 한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소송 외에도 시민들의 환경권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도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 환경민원가이드북 초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환경법이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환경법제의 변화에 대하여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2006년 출간된 책을 전면 개정하여 '환경민원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부 또는 사업자를 상대로 환경운동가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 분쟁지역 톺아보기'는 환경변호사를 양성,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경소송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며 예비법률가들이 환경분쟁현장을 이해하고 환경문제와 환경소송을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예비법률가, 현 법률가, 환경활동가들이 공동으로 환경분쟁지역을 돌아보며 정책대응 활동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가-전문가-활동가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신지형 /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2016년 활동

-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2016. 1.~)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가, 단체 대표 등의 원주지방환경청 주거침입, 퇴거불응, 양양군청 주거침입, 강원도청 재물손괴, 국회 앞 집시법 위반 등 형사사건 진행(2016. 3.~)
-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진행(2016. 3.~)
-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답사 프로그램 진행(2016. 7. 5.~7. 8.)
- 환경부장관 외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2016. 12.)
-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실시설계계약체결 위법을 이유로 양양군 공익감사청구 (2016. 12.)
- 환경민원가이드북 전면개정 발간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관련 강원도청 기자회견 형사소송(2017. 1. 25. 항소기각)
- 밀양 송전탑 반대 법률대응(2017. 2. 2. 항소기각)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확인 등 소송(2017. 2. 7. 취소판결 선고)

2017년 계획

2017년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의 법률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구둑과 4대강 보 개방 법률대응, 용산미군기지 내부 토양오염 법률대응, 살처분 매몰과 관련한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소송,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에너지정책, 원전정책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등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소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제도의 연구와 법률 제·개정 활동으로 환경소송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법 개혁을 위해서도 활동합니다.

"환경분쟁지역을 답사하면서 법률가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이라는 너무 많이 회자되어 지극히 상투적인 이 문구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환경분쟁소송은 행정부와 거대 자본, 넓게는 개발주의 자체를 상대로 하는 지난한 소송 중의 하나로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열의를 갖고 싸워나가는 주민들을 뵙고 나니 그들의 노력 덕분에 개발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조금씩 금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살아갈 나는 이 분들께 많은 것을 빚지고 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나도 법률가로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인영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참가자

새로운 초록연대기를 쓰는 스무 살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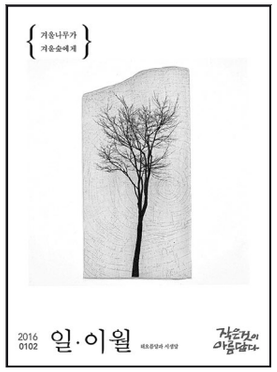
2016년은 <작은것이 아름답다>가 첫 걸음을 내딛은 지 스무 해가 된 해였습니다. 한 해 한 해 조금씩 초록의 자리를 넓혀 스무 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동안 걸어온 걸음을 돌아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새로운 초록연대기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오랜 준비 끝에 개편호를 통해 새로운 지구별 푸른 소식을 담았습니다. 1·2월호 <겨울나무가 겨울 숲에게>, 2월 특별호 <다함께 살리는 건강처방전>, 3월 개편호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를 맞아 밥상에 오른 방사능 식품을 다룬 <방사능, 밥상에 오르다>, 4월호 <고치고 꿰매고 만들어가는 집>, 5월호 <지구 아이>, 6월 20주년 창간기념호, 자연의 푸른 말을 배우는 <푸른 말을 찾아서>, 7·8월호 생태취미를 다룬 <취미는 자연>, 8월 특별호 <작고 느린 만화가게>, 9월호 자본에 포위된 공기를 들여다본 <공기의 탄생>, 10월호 목화의 재발견 <목화다>, 11월호 되살림, 업사이클링운동을 다룬 <쓸모있다면>, 12월 송년호는 기본소득 첫걸음을 떼는 변화를 담은 <고르게 당당하게 기본소득해>, 달마다 변화를 이끄는 녹색 삶, 대안을 만드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단행본 2권도 출판했습니다. 4월에는 <작아>의 오랜 필자 '마중물' 시인 임의진 님의 시를 묶어 《버드나무와 별과 구름의 마을》을 펴냈고, 10월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의사 34인이 쓴 《다함께 살리는 건강처방전》을 펴냈습니다.

10월에는 합정동 '갤러리 사각형'에서 열흘 동안 <작아> 스무 해를 기념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초록연대기전', 20년 동안 초록역사를 담아낸 240권 <작아>, 지구별에서 만난 참 좋은 인연과 녹색현장이야기를 전시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작아 텃밭 10년 이야기', '읽새와 함께하는 직조교실', 권혁수 글틀지기의 '식물성 이야기' 강의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12월에는 한해를 마감하는 '숲을 살리는 문방구'를 이틀 동안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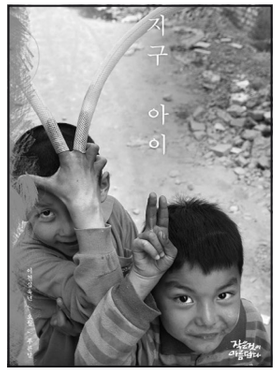
재생종이 운동은 지난해에 이어 '숲을 살리는 재생복사지'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한 장에서 한 그루로, 숲을 위한 복사!'를 위한 참여를 제안했고, 많은 개인과 단체, 학교, 기업, 종교기관에서 숲을 살리는 재생복사지를 선택했습니다. <작아> 스무 해의 의미를 새기며 다시 지구를 살리는 초록연대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1) 작아 1-2월호

(2) 작아 3월호

(3) 작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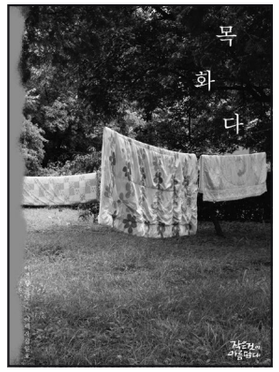


(4) 작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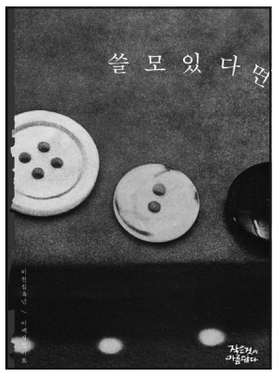
(5) 작아 6월호

(6) 작아 7-8월호

(7) 작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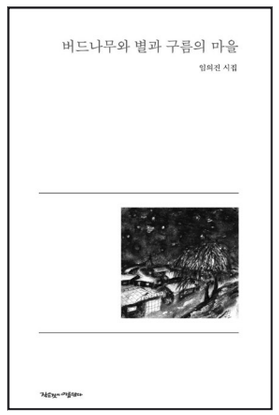
(8) 작아 10월호



(9) 작아 11월호

(10) 작아 12월호

(11) 단행본 건강처방전



(12) 단행본 임의진시집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첫 작업은 녹색연합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를 찬찬히 확인하여 한 장의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녹색연합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함께 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향도 가늠해볼 수 있게 됩니다.

팀마다, 활동마다 서로 같기도 또 다르기도 한 이해관계자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나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연대하고 협력하며 녹색연합을 만들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 녹색연합 내부의 판단과 계획을 검토하고 활동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녹색 지구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과 더 자주 더 가까이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연합은 누군가의 이익과 손해를 위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마음을 공유하며 움직이는 곳이기에, 이해관계를 넘어 공유와 소통을 담은 지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1) 대상
(2) 구성
(3) 관계
(4) 소통과 공유 채널

소통과 공유

(1) 활동가
(2) 본부 사무처 32명
(3) 녹색삶을 실천하며 녹색연합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환경운동가
(4) 전체회의, 팀회의, 워크샵

소통과 공유지도

(1) 회원
(2) 본부 5,764 명
(3) 녹색연합의 강령에 동의하며, 회비납부, 활동참여로 녹색연합을 만들어가는 녹색시민
(4) 회원총회, 뉴스레터, 녹색희망, 전화, 문자 신입회원모임 등

(1) 임원
(2) 대표, 사무처장, 감사
(3) 회원총회에서 선출되어 대내외로 녹색연합을 대표.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자문, 감사
(4) 중앙집행위위원회, 감사 절차 , 워크샵 등

(1) 후원자
(3) 후원행사, 비정기 기부 등 후원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기업
(4) 후원행사, 이메일, 연간보고서

(1) 전문기구
(2) 녹색법률센터, 작은것이아름답다, 녹색사회연구소, 녹색교육센터
(3) 법률, 출판, 연구, 교육 각 전문 영역에서 환경운동 수행
(4) 월례회의, 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 이사회, 그린테이블(연구소)

(1) 전문위원
(2) 각 분야 추천 전문위원 24명
(3) 전문영역에서 활동 자문과 참여
(4) 사업별 간담회, 사업결과보고

(1) 전문가
(2) 각 분야 연구자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 조사, 연구 협력
(4) 간담회, 조사와 탐사

소통과 공유 채널

회원총회 : 2년 단위 녹색연합 전국 조직 활동과 운영을 평가, 승인하는 최고의결기구
전국운영위원회 : 전국 조직 대표와 사무처국장들로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 개최
사무처국장단회의 : 전국 조직 사무처국장들이 격월로 녹색연합 전체 활동 방향과 운영 논의
중앙집행위원회 : 대표, 본부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조직팀장, 활동가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여 월 1회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 운영과 활동 논의
인사위원회 : 상임대표, 본부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활동가협의회회장으로 구성. 본부 사무처 활동가의 채용, 포상, 징계 결정
활동가협의회 :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권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 활동가 중 인사권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구성. 정기총회와 회의 안건 상정 시 수시로 열림
월례회의 : 본부 사무처, 전문기구가 함께 월 1회 활동을 공유하고 논의
주간회의 : 본부 사무처 활동가들의 전체 회의
팀장회의 : 본부 사무처 팀장들의 주간 회의
팀 회의 : 본부 사무처 각 팀 회의

(1) 시민
(3) 직간접적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하며 녹색가치를 확산
(4) 홈페이지, SNS, 캠페인

(1) 자원활동가
(2) 야생동물탐사단, 청소년자원봉사
(3) 녹색연합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일하는 녹색시민
(4) 활동

(1) 연대 조직
(2) 시민·주민·환경단체,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탈핵공동행동,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등
(3)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민과 단체
(4) 단위별 간담회와 회의

(1) 지역조직
(2) 인천,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광주, 광양만, 설악, 원주, 전북
(3) 강령을 바탕으로 본부 사무처와 협력하며 전국 각 지역에서 환경운동 수행
(4) 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 전국운영위원회, 전국 워크샵, 3% 기금

(1) 국회
(2)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3) 환경의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 정책 연구, 예산 모니터링
(4) 모니터링, 간담회, 토론회

(1) 협력파트너
(2) 기업, 재단, 업체
(3) 공동의 목표를 갖고 사업기획과 예산수립, 업무를 함께 수행
(4) 사업회의, 결과보고

(1) 정부
(2) 중앙정부, 지자체
(3) 환경개발사업 감시와 대응활동, 환경보전사업 자문과 협력
(4)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1) 언론사
(2) 각 언론사
(3) 콘텐츠 제공, 공동기획/취재 등 환경의제 해결과 대중적 확산을 위해 협력
(4) 보도자료, 동행취재

“녹색연합 회원인 것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희망과 실천으로 삶을 바꾸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걸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녹색연합!”

다양한 활동 속에서 회원님들이 건네주시는 작은 고백, 고맙고 고맙습니다.

“혹시 회비 계좌가 바뀌었나요?”, “소식지가 반송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알려 주세요”, “성곽나들이 함께 가실래요?” 라는 연락 한 통에도 “녹색연합이니까…”라며 반가워 하시는 표현 속에 묻어나오는 신뢰,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 자주 나누지 못해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한 회원들이 있어 든든했고, 힘이 났습니다. 녹색연합은 회원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회원 소통

회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두 달에 한번 녹색희망으로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활동 영역별로 주제를 정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 대안을 만드는 법과 제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합니다. 회원에세이, 회원인터뷰, 여러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이야기 등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만납니다. 한 달에 두 번 온라인 뉴스레터로 시의성 있는 활동소식, 여러 회원 행사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생명, 평화는 어떤 의미인지, 회원 행사는 만족스러웠는지, 녹색희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녹색연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 등 여러 질문들을 하고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문자로 여러 문의를 하고, 변경된 정보를 보내기도 합니다. 활동가들과 녹색연합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센스 넘치는 회원들도 많습니다.

신입회원모임, 회원나들이, 현장출동, 어린이 자연학교, 송년행사 등 다양한 회원행사에서 회원들과 만납니다. 2016년에는 15회의 회원행사 뿐 아니라 서명운동, 캠페인과 생태드로잉 등 교육 강좌를 통해 1,80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지 감사전화로 안내도 드립니다. 10년 회원에게는 활동가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함께 뛰어 주신 보답으로 양말 선물도 보냅니다. 15년 동안 후원해주신 회원들께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처럼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편지와 수저 세트를 보내드리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녹색연합 운영과 활동방향의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회원정보관리

회원 정보는 소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모든 정보는 녹색연합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고 최종 후원일 5년 후 삭제처리 합니다.

녹색연합에서 취합한 회원들의 회비출금 관련 정보는 출금신청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나이스정보통신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우편발송을 위한 주소 정보는 우리디엠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작성된 기본 정보는 자물함이 있는 문서보관함에 보관해 개인정보가 열람되지 않도록 합니다.

후원을 중단할 경우 녹색연합 탈퇴회원으로 기록되며 동시에 회원님의 후원정보는 삭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160조의 3과 법인세법 제112조의 2에 의해 후원내역과 주민등록번호(법인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회원현황

2016년 신규, 탈퇴회원_ 2016년에 만난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2016년 462명 회원들이 녹색과 새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가들의 권유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이 117명(25%)으로 가장 많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활동 내용을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 78명(17%)입니다. 또한 녹색연합 회원들이 권유하여 회원이 되신 분들이 45명(9.7%)이며 이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쉽게 후원을 중단하신 분들은 754명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랜 경기 불황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단하신 분들의 비율이 175명(23%)로 가장 많고, 개인적인 이유로 중단하신 분들이 89명(12%)입니다. 계좌를 직접 해지하여 후원을 중단하신 분들이 370명(49%)으로 중단사유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신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13년까지 6년 동안 진행해 오던 거리 회원모집활동을 중단한 이후 새로 가입하는 회원보다 탈퇴 회원의 수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신입회원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백두대간을 지키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탈핵세상을 앞당기는 일,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지구별을 만드는 녹색연합 활동에 이웃들이 함께 하도록, ‘녹색연합 회원가입’을 권해 주세요.

회비 현황

십시일반의 힘이 녹색연합을 만듭니다.

녹색연합 회원들의 회비는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녹색연합이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6년 회비 수입은 791,915,960원이며, 회원들의 평균 회비는 12,432원입니다. 달마다 보내주시는 회비 외에도 후원행사나 특별모금에서 보내주시는 특별회비와 회비증액도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16년 후원행사에서는 127명 회원들께서 특별회비 1,908,000원을 보내주셨고, 64명 회원들께서 회비를 증액해주셨습니다.

개인, 기업, 단체의 후원 그룹 중 개인의 비율이 99%에 이를 정도로 개인후원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전체 회비 중 1만원 이하의 회비 비중이 75%입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회비 구성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회비구조를 만들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15년 회원 이상

58

58

58

58

58

11–15년 회원

58

58

58

58

58

6–10년 회원

58

58

58

59

59

59

1–5년 회원

59

59

59

59

59

59

59

59

59

59

신규회원

17% 986명

16% 9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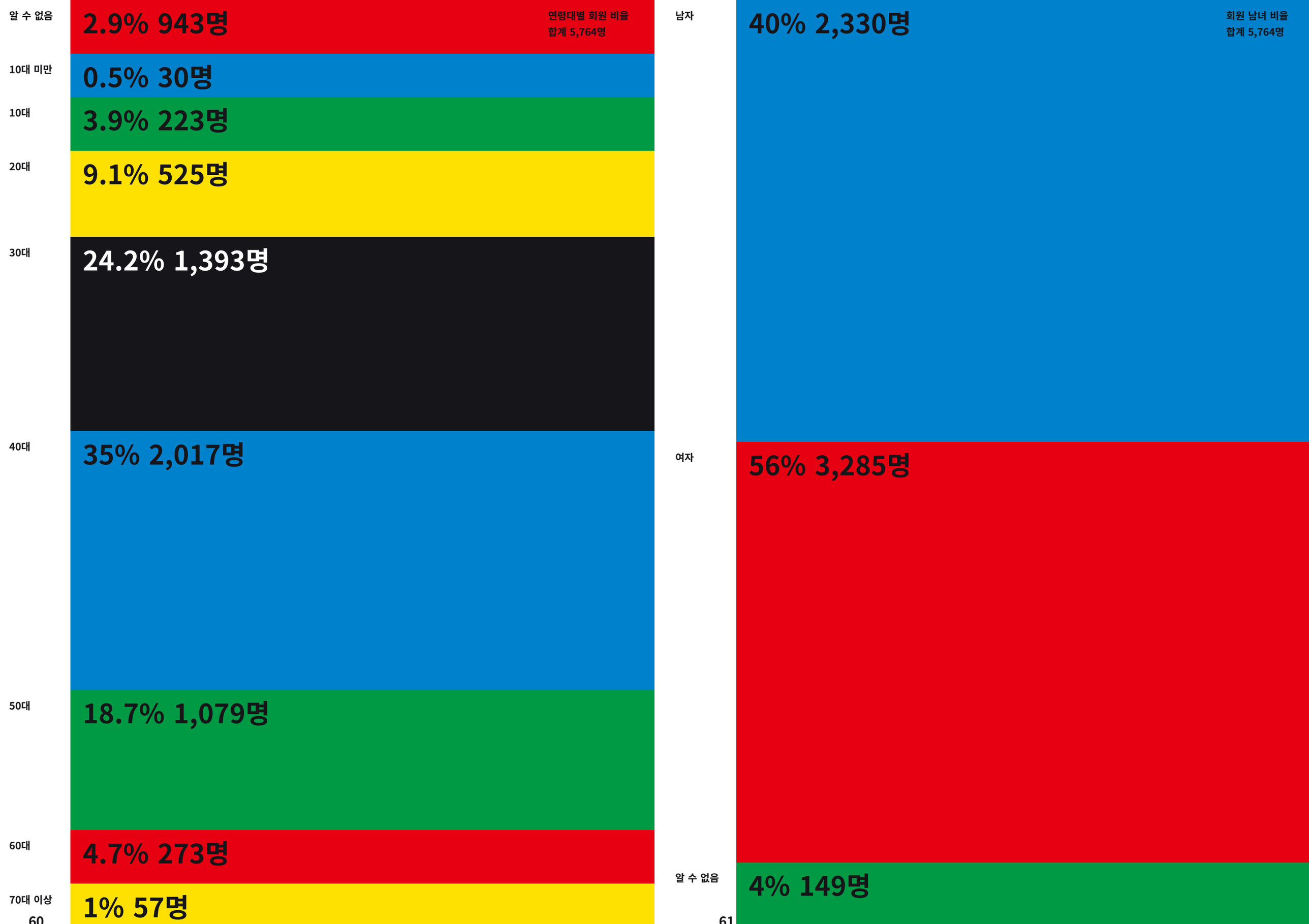
30% 1,746명

35% 2,044명

1% 45명

가입 기간별 회원 비율
합계 5,764명

회원 지역 분포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회원이
전체 회원의 76%를 차지함


알 수 없음
2.9% 943명
연령대별 회원 비율
합계 5,764명
10대 미만
0.5% 30명
10대
3.9% 223명
20대
9.1% 525명
30대
24.2% 1,393명
40대
35% 2,017명
50대
18.7% 1,079명
60대
4.7% 273명
70대 이상
1% 57명
60
남자
40% 2,330명
회원 남녀 비율
합계 5,764명
여자
56% 3,285명
알 수 없음
4% 149명
61

나의 자긍심, 녹색연합 회원

녹색연합이 지속가능성 진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를 묻는 회원설문조사에 답을 주신 126명 회원 중 네 분을 만났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사는 곳도, 회원이 된 지도 다 다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 '녹색연합 회원'이라는 것만으로 같은 점을 계속 발견했던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녹색연합, 들어볼까요?

김승
유명한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아닌 게 오히려 맘에 들어 회원이 된 지 17년째

박혜원
십 대 때 환경교육을 받았던 녹색연합, 이젠 회원으로 1년째

백수영
신문에 난 활동가의 글을 읽고 감동해 회원이 된 지 18년째

이규화
환경문제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며 회원이 된 지 8년째

어떤 기대로 녹색연합 회원이 되셨나요? 그 기대는 충족되고 있나요?

활동가들은 시민을 대신해, 나를 대신해 뛰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활동가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헌신이 회원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하구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녹색연합처럼 전국 단위로 환경 이슈를 끌고 가야 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리왕산 문제를 이슈화 하거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시키는 걸 보면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요.

녹색연합은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점이 좋았어요. 명성에 기대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거든요.

그린컨퍼런스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녹색연합은 참여할 수 있는 곳, 대중과 소통하는 곳으로 보였어요. 혼자서 환경을 고민하는 대중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나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랐는데 녹색연합이 보내주는 소식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청렴하게 사용하고 공유해주는 것도 좋아요.

"활동가들이 나를 대신해 뛰어주고 있다 생각해요. 기대에 부응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요.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하는 걸 보면 그게 시민단체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지요"
— 백수영

녹색연합 회원으로 자긍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녹색연합 회원이다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라도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요.

녹색연합 회원이 되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게 반대로 말하면 자긍심을 느끼는 상황이지요.

활동가들이 제대로 생활할 만큼 대우를 받고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육아휴직, 안식년이 있는 것을 보니, 최소한 재생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녹색연합이 그런 고민을 하는 조직이구나 싶어 좋았어요.

녹색연합 활동가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성실하고 친밀해서 좋았어요. 오랫동안 일하는 활동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 활동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오래도록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긍심을 느껴요.

언론에 설악산 케이블카 활동이 나올 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느껴요.

녹색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긍심을 느껴요. 회원의 가게 명패를 가게에 달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을 할 때에도 "우리 녹색회원 가게야, 견뎌 보자"라고 이야기하며 난방을 덜 해요.

녹색연합 소식 잘 얻고 있나요?

소식지 녹색희망으로 모든 소식을 얻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녹색연합 페이스북 페이지는 약간 뉴스 기사를 공유하는 느낌이 들어 딱딱해 보여요. 요즘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만한 내용, 문구를 이용하면 좋겠어요. 짧은 글과 그림으로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만 있어도 지나치더라도 한번 읽어 볼 것 같아요.

'곰/산양을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회원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캐릭터나 이모티콘을 개발해 이런 말 대신 활용하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SNS 채널이 있어 기회가 많이 열렸는데 녹색연합의 활동을 글, 그림, 노래, 애니메이션, 유튜브 등 여러 가지로 가공하고 소통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소식지, 카톡, 문자, 메일 다 보내시는데 잘 안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 중 하나는 보게 되요. 다양하게 시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녹색연합에서 보내 주는 소식지는 회원 선물 같아요. 제작비나 발송비 같은 비용이 걱정되지만 소식지를 받을 때 회원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종이로 만들지 않는 시대이지만 적은 횟수더라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녹색연합이 계속 중요하게 다뤄야 할 활동은 무엇일까요?

"요즘 개헌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개정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콰도르 헌법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 처럼요.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도롱뇽이나 산양도 원고적격을 획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비생명체까지도 원고 적격을 승인 받도록 할 수 있어요. 자연의 권리 헌법 개정 문제를 연계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김승

우리나라는 바둑판처럼 도로가 생기고 생태통로는 부족해요. 또 동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널형으로 만들어요. 외국에는 다람쥐가 사는 곳에 빨랫줄만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로드킬 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지요. 서울시 안의 로드킬 문제도 심각한데 이 문제를 본격 다뤄보면 좋겠어요.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동물들이 아직 살아있어 신고를 해도 오지 않았어요. 로드킬 발견 시 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이나 구조센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에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책은 너무 미비해요. 회원들과 함께 에너지 절전운동을 하면 열심히 참여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쓰레기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면 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계기로 더 큰 환경 문제에도 접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단체도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하듯이 회원들도 다른 사회문제를 녹색연합을 통해 소개받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까 반갑고, 모르는 사람은 녹색연합이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거에요. 예를 들어 김영란 법이 이슈가 되었을 때 설명을 한다거나. 좀 더 연대의 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로드킬 모니터링 앱 개발처럼 녹색+IT, 녹색+예술같이 녹색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한다면 녹색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 이건 내 분야인데 녹색?’하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많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연계될 수 있을 거구요.”

— 박혜원

대중에게 재미있게 다가 갈 수 있는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육곰 쉘터 광고를 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녹색연합에서 유기농 구매점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만들면 하나의 수익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 녹색연합은 회원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이득에 민감한 시대라서 나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당장에 이득이 되지 않지만 단체 회원을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채감을 덜어줘 홀가분하게 해줘요. 우리 스스로 각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존재이지요.

“동계올림픽과 가리왕산 문제는 녹색연합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사실 작년에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를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케이블카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회원이 아니었다면 오색케이블카도 찬성했을 텐데 회원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 이규화

회원이 있어 녹색연합도 있지만 녹색연합이 있어서 의지할 곳이 생기는 거고, 서로서로 의지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생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덜고 싶고 자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녹색연합 회원이 되서 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에 대한 죄의식을 씻어 줘요. 그래서 자기만족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지, 뚜렷이 단체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양심이자, 책임감, 못다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 환경보호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생겼어요. 희망이기도 하구요.

후원·협력 파트너는 녹색연합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산양보호활동, 설악산보호활동 등을 후원하며 파트너쉽을 맺기도 하고, 디자인, 캠페인 같은 일을 함께 하는 파트너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냉정하게, 녹색연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만나 파트너로서 녹색연합은 어떤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1) 2016년 녹색연합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은?

(2) 2016년 주요 환경뉴스 중 녹색연합이 앞으로 더 힘을 쏟아야 할 활동은?

(3) 녹색연합은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 하는가? 앞으로 어떤 역할에 더 힘을?

(4) 녹색연합에 후원, 협력하는 이유는? 기대는 충족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5) 녹색연합과 앞으로 협력하고 싶은 게 있다면?

김어진 / 일상의실천 대표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 실천'은 2011년부터 소식지 녹색희망, 연례보고서, 활동 보고서 등 녹색연합이 발간하는 대다수 보고서와 홍보물 작업을 함께 해 온 파트너입니다. 2016년부터 모든 현장에서 들고 있는 남다른 피켓도 일상의 실천 작품입니다.

(1)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은 게 먼저 기억납니다. 시의적이고, 성과를 얻었지요. 협업자 이전에 시민으로서 기분 좋았던 소식이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기는 적이 별로 없는데 완전한 승리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묘했어요. 두 번째는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연산호 지도 작업을 같이 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 사건, 잊혀진 이슈인데 꾸준히 지속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간다는 녹색연합의 태도를 보여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확대사업인데요, 녹색연합의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회원확대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이슈라 꼽고 싶네요.

(2) 보편적 이슈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온실가스 감축 계획 없는 미세먼지 대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대기질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삶의 질도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요. 녹색연합 활동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영위해 나가는 삶에 중심을 두지만, 환경운동은 결국 인본적 속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에 녹색연합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삶의 방식이 개선되는 데는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삶의 질 부분 개선, 다른 하나는 제도 개선. 녹색연합은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보면 뉴스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확 사라지는 강정 연산호 같은 단발성 이슈와 산양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몇 년에 걸친 장기 지속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장기 지속적인 이슈는 사업이기보다 싸움이고 투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게라도 한 발짝 나아가게끔 하는 활동들, 그게 녹색연합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활동가들과 이야기하다 장기 지속적인 사업을 하다가 투쟁하고 단식 농성하는 것과 또 다르게 현장에서, 제도개선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절망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걸 견뎌나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회원으로서도 협업자로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반대로 녹색연합이 장기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녹색연합 활동을 알게끔 하는 홍보 역할, 많은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풍부하게 있어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화 되려면 외연을 확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4) 다른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에는 '어떻게 디자인을 멋있게 할까'를 고민한다면 녹색연합과 일을 할 때는 '녹색연합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곡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쿨하고 멋있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가 너무 욕심 부렸다 싶지 않도록 해야죠. (간혹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죠. 그건 저도 알아요. (웃음) 반성하고 있어요.) 너무 곡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녹색연합의 목소리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고 또 진부하지 않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최근의 작업들도 재밌게 하고 있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면 초반에 했던 작업들 그때의 그런 어려움과 고단함들, 한편에선 풋풋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디자인을 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민낯을 보여주고 합을 맞추면서 서로의 최선을 내주던 과정이었죠. 활동가와 디자이너가 영역이 전혀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활동가들은 채워진 내용이 중요하고 디자인은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세련되게만 나오면 좋아' 그런 지점의 충돌, 서로 충돌하면서 섞이는 과정이었죠. 힘든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 간극이 조금씩 좁혀져갔던 과정이 행복했어요. 디자이너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녹색연합이 받아들이고 신뢰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접점이 같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더 제안하려고 합니다. 내부에서도 '굳이 무리수를 두지 말자'가 아니라 '이만큼 받아 줄 거면 이만큼 더 제안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곳과 작업을 할 때도 녹색연합과는 기획부터 같이 한다고 얘기해요. 녹색연합과의 협업을 선례로, 시민사회에 본보기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녹색연합 30주년 기념으로 일상의 실천과 녹색연합 10년 협업을 아카이브전 형태로 해보면 재밌겠어요. 디자이너와 활동가의 협업이 시민사회에는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것은, 지난 것을 회상하듯이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해볼 수 있다는 것이,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는 것이 진짜 협업자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현 / 파타고니아 코리아 마케팅팀장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자연을 최대한 덜 해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가치로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파타고니아가 만든 '지구를 위한 1% 기금(1% for the planet)'이 2016년 설악산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지키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 파타고니아가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설악산과 백두대간 활동이 특별히 관심이 갑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은 성공 경험이 다른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백두대간 훼손 실태 조사 결과는 자연을 즐긴 이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결과와 현실로 직접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대중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휴식년을 제안하기보다 휴식주간, 휴식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설악산 단풍철이 지난 이후 회복을 위한 휴식주간 캠페인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주요 이슈로 꼽았습니다.

(2) 녹색연합의 '녹색'은 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마치 여름철 짙은 녹음만 '녹색'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겨울눈도 '녹색'이 듯이요. 설악산과 4대강은 녹색연합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활동이지요. 자연을 지키는 활동으로 녹색연합 중심을 유지하고 다른 활동을 연결해 힘을 합치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의 마지막은 녹색 바로 '자연'으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녹색연합의 브랜드 컨셉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탈핵과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녹색연합은 자연의 문제와 연결해 중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지요. 당장 실생활과 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지속해 중심 내용이 노출될 때 녹색연합만의 색깔, 녹색다움이 자연스레 만들어질 겁니다. 단체의 성장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일반인들이 실생활과 가깝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용보다 전달 방식의 문제 아닐까요? 아웃도어 문화는 상당부분 도시화의 산물입니다. 콘크리트 속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결코 실생활과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3) 파타고니아 창업주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불충분하며, 책임을 지는(responsible) 성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처음 한국 환경 NGO 지원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야생동물도 잘살고, 나무도 우거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녹색연합은 그들이 왜 중요하고, 사라지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우리 후손들은 어떤 일을 겪어야 하고, 어떤 도미노가 벌어지는지 더 알리고 설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하다 보니 한국의 기부 시장 안에서 환경영역을 키우려면 녹색연합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매력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불황에도 견딜 수 있게요.

(4) 지난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기 위한 녹색연합 활동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자신감, 진정으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무거운 주제일수록 유쾌하고, 기분 좋은 메시지와 긍정적인 방식이 덜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또 침투력도 더 강하지요.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라는 선언적인 메시지를 녹색연합만의 색깔을 담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에 실린 아름답고 기분 좋은 사진들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냥 책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진이네요.

(5) 녹색연합과 파타고니아의 정체성과 뿌리는 결국 자연이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디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기 생태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꼽자면, 여러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재능을 모아 NGO의 필요한 부분을 돕는 세미나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재무, 마케팅, 고객유치 등 미리 도움이 필요한 주제를 조사해 참여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전문적인 재능을 가치 있는 일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GO에는 필요한 전문 기술을 익히는 장이 되도록요. 분명 녹색연합 회원과 후원자 중에도 훌륭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박진석 / 카카오 소셜임팩트팀 차장

녹색연합은 모금플랫폼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임직원들이 조성한 기부펀드 '다가치펀드'는 3년째 이어져, 카카오 임직원들과 환경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힘을 모으는 공간을 열어주는 파트너입니다.

(1) '산양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아요'라는 카피가 좋았어요. 그걸로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하고 모금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설악산이고, 왜 케이블카가 문제인지는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지만, '아, 산양은 정말 케이블카를 타지 않지'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아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돼서, 결과까지 잘 연결이 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입니다.

(2)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원료 사용금지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스크럽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다 들었어요. 생활에서 행동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야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예전에 스프레이 같은 것도 사용원료 자체로 접근하고 이야기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고 이슈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 환경문제는 즉각 자기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막연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이지요. 녹색연합은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의 핵심을 알리고, 동참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합니다.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고민하는데요, 대중과 접점을 넓히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4) 녹색연합에 후원하고 협력하는 이유는 첫째, 카카오 이용자들과 임직원들이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녹색연합이 가진 상징성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25년 동안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대중과 함께 하였습니다. 4,200만 명 '카카오톡' 이용자와 인터넷 포털 '다음'을 통해 환경 문제로 소통해 왔고, 여러 이슈를 알리고 모금을 진행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협력기간이 말해주듯, 카카오는 녹색연합과 협력에 만족합니다. 굳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모바일 시대인 만큼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든 참여방법이든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5) 이용자에게 환경문제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동참 하도록 협력하는 게 어떨까요? 카카오와 다음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태호 / 임팩트워커스 대표

임팩트워커스는 비영리단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모금 솔루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눔 문화를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이태호 대표는 녹색연합에서 모금업무를 시작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팩트워커스를 창업했습니다. 늘 고향과 같은 녹색연합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나눕니다.

(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이 2016년 녹색연합이 이뤄낸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오랜 신념을 갖고 지키는 게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녹색연합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4대강 사업도 여전히 관심이 큽니다. 물고기 이동권 캠페인은 처음 들어봤어요. 4대강 사업의 문제와 현상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과제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같은 캠페인에 동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4대강을 크게 변화시킬 순 없더라도 4대강을 살리고 복원해 가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인간과 자연에게 가장 끔찍한 상황을 주는 게 바로 원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판도라 영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전 문제를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통해 원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앞날에 두려움도 커지고 정부정책에 분노도 생기더군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생길 끔찍한 상황, 거기에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너무 심각한 문제에요. 진짜 두려웠어요. 원전문제만큼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라 봅니다.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심어줄까, 시민들 의견이 모이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정책을 바꾸는 데까지 녹색연합 역할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세먼지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심각 수준을 넘었어요. 핵 발전이나 4대강처럼 큰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환경문제도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남아 있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 자연에 대해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녹색연합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 게 시민단체의 정체성입니다. 가끔 시민단체와 대화하다 보면 어떠한 정책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시민들과 이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받아 대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만 내내 고민을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다고 느껴요. 물론 의견을 받는 것이 잘 안되고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대안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기반으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녹색연합의 역할은 자명합니다. 자연과 생태계의 중요성과 공존 필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환경문제 현황을 알리고, 대안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로부터 정부와 시장과 시민의 역할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녹색연합은 어떤가요?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파이를 넓혔으면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심각성과 이슈를 인지하고 중요하다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언론, 온라인, 소셜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활동가로 유일하게 일해본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있는 단체입니다. 가끔 녹색연합 사업과 활동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활동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싸우고 있구나 생각하면요. 오랜 기간 끝에 아주 작은 성과라도 보게 되면 이게 녹색연합이구나, 묵묵히 우리나라 환경을 지키고 변화시켜 가는 걸 보면 이게 바로 녹색연합이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 합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변화! 내가 녹색연합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있어 환경이,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활동가들 급여도, 삶의 질도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5) 향후 임팩트워커스가 성장하여 여건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연합을 위한 무료 대면후원캠페인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녹색연합이 많은 지지자를 모으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예산지원입니다. 후원행사든, 정기 후원이든 녹색연합에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 내 아이들과 내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과 함께 산과 바다, 강을 다니며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녹색연합의 이런 활동을 나도 했었고 녹색연합이 있어 이런 자연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상 / 제로그램 대표

제로그램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친환경적인 아웃도어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깊고 넓게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연 속으로 작게, 적게, 조용히 스며들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2014년 가리왕산부터 시작해 백두대간과 설악산을 개발로부터 지키는 일에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1)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막은 것은 환경 운동 영역에서 흔치 않은 성공 사례였지요.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더 뿌듯했습니다. 이 성과를 잘 살펴 다음 사례를 만드는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전 박그림 대표의 리더십과 함께 이슈 공감과 확산을 위한 노력, 연대와 네트워크의 힘이 시너지를 발휘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덕분에 설악산이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고요.

(2) 녹색연합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녹색연합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회원이나 후원자로 만들겠다 한다면 생활 밀착형 방식이나 주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로 쓰는 피케팅이나 퍼포먼스는 중요하다는 의미만 내세운 일종의 선언 활동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녹색연합의 활동영역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닌데다 삶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니 데모 혹은 운동가의 방식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방식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도 이해 가능한 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공감하는 회원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용품 유해물질 위협처럼 주변 가까운 환경 문제의 밝혀지지 않는 진실을 끄집어내어 알리는 것이죠. 조금 더 바란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이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돌이켜보니 잘 몰라서 자연을 훼손을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요. 가치관 형성이 되는 시기의 교육은 이미 만들어져버린 성인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3)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과 사회 가치 사이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자연의 존엄을 지키는 활동은 이념과 종파를 초월한 것임에도 일반 기업과 녹색연합의 협력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녹색연합 중심이 분명하고, 이해집단의 뜻에 휘둘리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낼 주체성만 있다면 연대하고 협력하는 문턱을 조금 낮춰도 좋지 않을까요? 실제 중요한 것은 협력할 수 있느냐는 명분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같은 활동의 내용 이니까요. 물론 최소한 기준은 있어야지요. 파트너가 반복적으로 사회 비리를 일삼거나, 정당하게 문제해결을 못한다면 협력은 어렵겠지요. 다만, 어떤 사회문제가 벌어진 후 책임있게 대응하고 처리한다면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4) 제로그램은 아웃도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숲과 자연을 이용하는 개인의 자유를 돕고 있지요. 그래서 수입의 일부분이라도 자연을 지키는 곳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이 가리왕산이나 설악산을 자연그대로 지키려는 활동을 응원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나일론 텐트와 휘발유 버너 개발이었습니다. 미국은 1892년부터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이 있었지만 캠핑과 오지 트레일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1970년대가 돼서야 여러 환경단체와 환경을 위해 자원봉사자 조직들이 연대하여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LNT(Leave No Trace) 캠페인이 본격화되었지요. 지구자원을 덜 쓰는 형태로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뜻에 제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사회비용을 우리도 함께 부담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웃도어 활동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면서 즐기는 이들의 환경 윤리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깝기도 했고요. 우리 아웃도어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만이라도 환경윤리의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전파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녹색연합은 그 채널을 활용하고요. 녹색연합과 제로그램이 함께 하는 캠페인에 녹색연합의 가치와 내용이 더 깊숙이 결합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5) 녹색연합과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하기보다 기존 녹색연합 활동에 내용으로 더 깊숙이 결합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소나무 숲길 걷기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해 진행 해봐도 좋겠어요. 녹색연합은 자연에 해를 덜 끼치는 제로그램 고객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 책임을 느끼는 시민으로서 뜻이 맞는 기업들과 함께 사회변화를 만드는 NGO를 지원하는 사회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이 있습니다.

황진영 / 두산매거진 Allure 얼루어 편집장

두산매거진에서 발행하고 있는 '뷰티&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얼루어>는 해마다 건강한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나누는 특별한 하루로 '그린 캠페인'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캠페인 수익금 전액을 녹색연합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을 지키는 활동에 후원합니다.

* 황진영 편집장, 편집팀 전소영 기자, 정지원 기자, 마케팅팀 박경난 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1) 지난해 녹색연합 활동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저지 활동', '백두대간 훼손지 조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산 매거진 얼루어는 '그린 캠페인'을 통해 7년째 녹색연합과 산양보호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 무엇보다 보람됩니다.

(2) 질문에서 녹색연합 고민이 느껴집니다. 녹색연합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활동 내용을 제안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나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덩어리의 사업이 본격화 되어야 할 텐데 활동가 인력이나 재정이 가능할까 먼저 걱정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에 사람들의 관심이 몹시 크긴 하지만 휩쓸리고 매몰되지 않는 전통, 단단하고 튼튼해 경쟁력 있는 녹색연합의 활동 원칙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내용을 제안하기는 어렵지만 활동 방식은 좀 더 세련된 느낌이 필요합니다. 이 멋진 일들이 남들 모두 알게 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효리 라는 스타일리쉬의 아이콘이 환경에 관심을 일으키게 했던 것처럼 하나의 물꼬만 트인다면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멋있는 일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녹색연합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name value)도 더불어 높아질 테고요.

(3) 요즘 협업이 하나의 문화 코드인 것 같아요. 얼루어 행사장에서 젊은 참여자들을 새롭게 만난 것처럼 기존의 녹색연합 관계망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접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녹색연합 콘텐츠 전파력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 이미지를 전면에 내건 패션이나 뷰티 분야 브랜드를 공략해 적극적인 협력 제안을 하거나 신용카드 회사와 협력해 마일리지를 기부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후원처를 알아보다 한국의 자연 중에서도 기왕이면 숲을 지키는 활동에 후원하고 싶었습니다. 녹색연합의 산양보호활동 협력 제안을 받고 생각해보니 산양을 지키다보면 산양이 사는 숲도, 금강소나무 숲도 보호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색연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생동물 종 중심의 보호활동이 아닌 서식지를 지키는 방식의 보호활동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얼루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참 다행스런 일이었지요. 이 훌륭한 활동을 외부로 알리는 일에 약간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SNS로 소통하는 시대라 이미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2인 가족이 늘고, 혼자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문화로 확산된 영향도 있습니다. 녹색연합 페이스북은 활동을 전달하는 설명적인 콘텐츠가 많아요. 반면, 인스타그램은 흔히 비주얼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해, 페이스북과는 달리 감각적인 이미지 위주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가치를 담은 생활 밀착형 주제나 젊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하나의 주제를 잡아 이미지 중심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매체라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생각이 들 만한 사진 한 장만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정한 테마에 따라 감각적인 사진을 중심으로, 페이스북은 녹색연합의 주장을 담은 스토리를 중심으로, 매체 특성에 맞게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어요.

(5) 그 동안 '그린 캠페인'에서도 다양한 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작가, 디자이너, 제작사와 함께 산양 캐릭터로 에코백, 티셔츠 같은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해왔습니다. 그 수익금 전액이 산양을 지키는 활동으로 다시 쓰였고요. 갖고 싶을 만큼 예쁜 상품을 기획해 만들고, 이를 통해 산양을 친근하게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연과 환경에 생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역할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올해의 협업 목표도 분명해졌네요. 그린캠페인 잘 준비해서 산양 지키는 후원금 많이 모아야지요.

더 나은 녹색연합을 위한 질문

진단과 대안에 앞서 녹색연합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활동가, 대표, 전문위원, 전직 활동가, 지역·전문기구 활동가, 회원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은 녹색연합의 의사결정체계, 재정운영, 윤리경영, 인권노동, 정보보호, 단체의 영향력, 사업 계획·관리·성과, 이해관계자와 관계 관리, 인권에 기반을 둔 사업접근, 고유목적의 체계성에 해당하는 총 30개의 이슈 중에서 10가지를 고르도록 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성'부분은 녹색연합에선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이므로 이 설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설문조사 : 활동가그룹 24명 / 대표, 전문위원, 전직 활동가, 지역·전문기구 활동가 그룹 47명 / 회원그룹 126명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중요성분석 매트릭스>는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활동가와 임원 설문 결과를 Y축에, 회원들이 중요하다고 한 이슈들을 X축에 배치합니다. 즉, 그래프에서 좌측 상단에는 활동가나 임원 등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가, 우측 하단에는 회원들이 주로 관심갖는 이슈들이 있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는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게 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 11개 이슈를 중요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5개 주제로 묶어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녹색연합
지속가능성 이슈 (★표시)

조직의 고유목적
— 명확한 고유목적과 비전
— 명확한 조직의 핵심가치
새로운 사업/프로그램 발굴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가의 일과 삶
— 기본적인 노동권리 준수
— 조직 내의 차별금지
— 일과 삶의 조화
— 활동가의 성장과 자기계발
조직운영
— 재정운영의 건전성
— 회계투명성
— 지배구조

내부중요이슈

명확한 고유목적(미션)과 비전 ★
새로운 사업/프로그램 발굴 ★
일과 삶의 조화 ★
지배구조 ★
직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 준수 ★
직원의 성장과 자기 계발 ★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과 평가 ★
명확한 조직의 핵심가치 ★
조직의 목적과 프로그램 성과의 연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재정 운영의 건전성 ★
조직의 영향력 고려
조직 내에서의 차별 금지 ★

중요하다고 선정한 이슈가 두 그룹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만, 몇 가지 이슈에서 차이점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소통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활동가 조사에서 상위에 선정된 이슈들이 나머지 그룹에서도 순위차이는 있으나 역시 중요한 이슈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중요한 문제로 선정한 <조직 내 차별금지>이슈는 회원과 임원그룹 모두 관심이 적었습니다.

(2) <후원자 관리> 이슈는 후원자인 회원 당사자의 답변이 9%에 불과합니다. 후원자 예우, 관리보다 조직의 목적에 집중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회계투명성>이슈는 회원그룹과 임원그룹에서 각각40%, 30%가 채택한데 비해, 활동가 그룹은 13%만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라기보다 현재 회계투명성이 매우 높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4) <위험요소의 관리와 대응>, <조직의 인지도 및 평판> 이슈는 전체적인 채택률이 낮긴 하나 활동가그룹에서 30% 이상인데 반해 나머지 그룹은 10%대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파트너십 관리>이슈는 나머지 두 그룹에 비해 활동가 그룹의 채택률이 큰 차이로 낮았습니다.

자원활동가 대우
프로그램 임팩트 측정/관리
실행가능한 조직 운영 원칙과 기준
조직의 인지도 및 평판
파트너십 관리
회계 투명성 ★
후원자 관리
사업/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
직원의 보건 및 안전
윤리적 모금
윤리경영/반부패
사업 위험 요소의 관리 및 대응
직원 만족도
인권존중(RBA)
직원고충처리
정보보호

외부중요이슈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녹색연합 활동은 녹색연합 내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색연합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이유는, 회원들과 활동가들에겐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자 시민들에겐 우리 사회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가는 곳으로서 우리의 미션을 살피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 영감을 주는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회원과 활동가가 함께 녹색연합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선정하고, 이 이슈를 진단해 더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조직문화 강의, 전문가 자문, 회원그룹토론, 후원자 인터뷰, 내·외부 구성원들이 함께 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계획들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성 진단과 대안 과정을 통해 녹색연합 강령에 담겨야 할 의미를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프로그램 발굴,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질문지표가 만들어졌으며, 좋은 조직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여 공동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과제는 2017년부터 실행되며, 얼마나 나아갔는지 다음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직의 고유목적

명확한 고유목적과 비전, 핵심가치

녹색연합은 4대강령과 녹색인수칙, 녹색의 노래로 녹색연합의 목적, 비전, 핵심가치를 나타냅니다. 녹색연합 활동 내용은 4대강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동가들이 지향하는 가치 역시 강령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는 녹색연합이 앞으로도 단단한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다만 강령이 추상성이 강한 언어라서 쉽게 전달하기 어려운 점, 업무와의 연계성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이 보완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강령의 시대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지 않아 회원과 활동가들 개인의 비전으로 긴밀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의 강령이 가치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녹색연합의 모든 활동영역과 운영(회의, 출장, 행사 등)에 적용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우리의 활동과 강령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8p 녹색연합 강령

의미있는 변화

새로운 사업·프로그램 발굴,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과 평가

녹색연합의 활동영역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고 조직 차원의 인큐베이팅 과정도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녹색연합 내부에 신규 사업 인큐베이팅 절차를 만들고 이 과정엔 인력과 재정지원도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은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과 평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활동가들의 참여로만 이뤄지는 점, 계획과 평가에 지표가 없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는 점, 경험을 서로 나누고 성찰하는 회고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진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계획과 평가과정에 전문위원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체 활동가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질문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88p 의미있는 변화

행복한 일터, 성장하는 활동가

기본적인 노동권리 준수, 조직 내 차별금지, 활동가의 성장과 자기계발

녹색연합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한 내규와 지침이 있고, 휴가와 복지제도,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아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가치 지향적이며 자율적인 일이라는 특수성으로 일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어도 조직적으로 이를 점검하지 못하며,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이 임금 수준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 점심휴무시간 유급화, 개인 교육비 인상, 야근 시 근무시간 조정 등을 정해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의 지속가능성은 곧 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입니다. 활동가들이 행복하게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인지 늘 점검하고 나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90p 행복한 일터, 성장하는 활동가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

지배 구조

녹색연합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모든 의결체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회원들의 참여가 의결체계 과정에 부족하다는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사무처 내부 의사결정이 주로 팀장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를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내고 해소하는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10p 조직소개
52p 소통과 공유지도

재정운영의 건강성

녹색연합은 회원들의 정기 기부금이 전체 재정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의 재정구조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평가하지만 미래의 재정 건전성 부분은 불안합니다. 회원유입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고, 후원처가 소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정운영·관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데 투자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연합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재정TFT를 만들어 재정현황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재정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92p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회계투명성

녹색연합은 회계담당자를 두고 재정운영내규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회계내용은 법적인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회계내용을 외부에 쉽게 전달하고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조직팀, 회원더하기팀, 상상공작소가 함께 모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지속가능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92p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의미있는 변화

녹색연합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엔 녹색연합 상근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대표단,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그 해의 사업계획을 새로 짜고 함께 점검하는 사업계획 워크샵, 상반기 동안 진행된 일을 돌아보고 하반기 더 집중하거나 서로 도와야 할 일을 점검하는 상반기 워크샵,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을 모색하는 사업평가 워크샵을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회, 월례회의, 주간회의에서 그 달의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달 계획을 점검합니다.

계획·결과 워크샵 : 계획수립, 점검, 평가를 위한 워크샵, 년 3회 진행
월례회의 : 본부와 전문기구가 함께 월 1회 사업점검과 공유를 위한 전체 회의
주간회의 : 월 1회 주요 활동보고, 의견 교류, 협업제안 위한 전체 회의
중앙집행위원회 : 월 1회 대표, 사무처장, 조직팀장이 본부 사무처 활동 점검
전국운영위원회 : 전문기구와 지역조직을 포함한 전국조직의 활동을 분기별로 점검

더 나은 미래

활동계획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뤘는가입니다. 그러나 운동에서 목표달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표달성만으로 계획과 평가 과정이 이뤄지면 활동가들의 사업성과는 늘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통해 드러난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활동가의 성장입니다. 녹색연합은 일을 통해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것 역시 우리의 큰 성과와 결과라고 판단하며 계획평가과정에 활동가의 경험과 성장을 돌아보는 '회고' 과정을 더해 과정과 결과를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을 위한 절차가 있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는 진단 아래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질문지표>를 만들어 계획, 평가, 회고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연합은 이 질문지표를 갖고 모든 활동을 돌아보려 합니다. 질문지표는 계속 수정됩니다. 또한 기존의 활동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활발히 제안되고 실행되는 구조가 없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의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만들고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질문지표

(1) 사업을 통해 목표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 목표와 활동내용은 녹색연합의 고유목적에 부합합니까?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 목표와 방향설정은 적절하였습니까?(시의성, 자원요소 등)
(2) 활동가 성장을 위한 과제와 요소가 있습니까? 그 시도가 활동가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3) 활동 가치와 의미가 공유되고 확산되었습니까? (대중적인 확산, 가치의 전달)
(4)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자원은 무엇입니까?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5) 회원/후원자들에게 한 약속을 성실히(꾸준히, 진정성있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6) 새로운 시도(방법, 아이템, 접근법, 관점 등 모든 것)를 하였습니까?
(7) 내·외부의 변화요소를 활동에 잘 반영하였습니까?
(8) 사업 계획, 점검, 실행, 개선에 우리 모두의 녹색연합이 함께 하였습니까?
(9) 외부와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일터, 성장하는 활동가

녹색연합은 활동가들의 일터입니다. 활동가들에게 일은 녹색연합 강령인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평화, 녹색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뜻합니다.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현장과 다른 면도 있지만 일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꾸리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인사노무 담당자를 두고 근로기준법과 활동가들이 함께 정한 내규를 지킵니다. 강령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제도, 성장을 위한 교육,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현황	전체 32명 (상근 27명, 안식년 2명, 파견 1명, 육아휴직 2명) 평균 근속년수 : 8.5년
채용	공개채용 원칙 / 채용 시 차별금지 / 채용시 인사위원회 개최
노동권리	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적용 / 비정규직 없음 / 활동가협의회 운영
활동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기본급 조정 (2016년 최저 기본급 130만원, 호봉 3만5천원) 수당 : 식대수당, 주거수당(단독세대주), 가족수당, 육아수당
휴가	연차 : 17일~25일 정기휴가 5일, 여성생리휴가 월 1일, 남성 출산휴가 10일 모성보호 : 출산·육아 휴직,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 1년 연장 가능, 임신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안식년 : 근속년수 6년 이상 1년 (대상자가 신청 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유연 근무	주말 근무 주중 대체휴무 · 여름 혹서기 자율근무 월 1회 셋째 주 금요일 셧다운(2시 퇴근) 4+1 제도 : 주 1일 다른 운동단체나 활동 영역에서 일할 수 있음

더 나은 미래

해결해야 할 환경과제는 늘어나지만 활동가의 수는 그대로라 활동가들의 업무량은 늘 많습니다. 그래서 보장되어 있는 휴가, 복지 제도, 교육제도도 시간과 비용부족으로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기준인 급여 수준으로는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녹색연합은 앞으로 활동가들의 성장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현실적인 급여수준을 만들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별, 학력, 장애, 종교 등 기본적인 차별금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수준을 넘어 녹색연합의 모든 활동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차별금지와 다양성 존중 가이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수습 기간 3개월 중 한 달 신입활동가 교육, 연중 연차별, 직무별 교육 교육비 : 활동가 일인당 년 20만원, 팀장 50만원 지급 녹색순례 : 해마다 일주일가량 도보순례에 전체 활동가 참여 스스로 프로젝트 :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교육모임 지원 단비기금 : 전국 녹색연합 각 조직이 회비 일정 액(현재 2%)을 적립하여 년 1회 6인 해외연수 지원 외부 교육프로그램 근무시간 내 참여 가능
소통	상조회 운영 우리사이 상담소 운영 : 갈등조정, 상담 기구 협업 공간으로 사무실 배치
더 나은 미래	하루 8시간 근무체제로 유지하되 무급 점심시간을 유급화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합니다. 활동가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교육비를 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녹색연합의 차별금지와 다양성존중 가이드를 만듭니다. 출장, 저녁 행사 등으로 야근을 할 경우 당일이나 다음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녹색연합의 목적과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이들이 있어야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 생명존중, 생태순환, 비폭력평화, 녹색자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권력과 외부의 압력에도 위협받지 않고 떳떳하고 독립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오랫동안 회원들의 회비로 재정자립을 이루려 애써왔습니다. 2016년엔 재정 수입의 약 58%가 회비로 충당되었습니다. 비회원들의 기부금과 후원행사를 통한 모금을 합하면 약 80%에 이릅니다. 재정수입의 80%를 회비와 기부금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녹색연합 활동이 회원과 기부자들에게 그만큼 지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케이블카 반대운동이나 탈핵운동 등은 이런 회비와 후원금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재정인 만큼 지출도 더 엄격히, 더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회비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늘어나야 하고 특히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더 큰 금액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녹색연합이 녹색세상을 위해 더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웃과 함께 녹색연합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6년 결산

2016년 녹색연합의 재정 수입 83%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뜻있는 후원자들의 일시 후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수입은 탈핵운동, 케이블카 개발대응, 4대강 반대 활동 등 외부기관과 공동 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안대응 활동,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가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모금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카카오 옐로아이디 모금함을 통해 총 965,000원을 모금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131명이 모아주신 그 기금은 2016년으로 이월되어 야생동물보호활동으로 로드킬 시민 캠페인과 산양 모니터링을 위해 소중히 쓰였습니다. 나머지 15% 재정수입은 사육곰정책 폐지 활동, 제주연산호조사, DMZ조사, 서울시등산로조사 등 주제별 운동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기관들과 프로젝트 계약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의 지출 비용은 목적사업비 항목이 가장 큽니다. 목적사업은 '강령과 정관에 의거한 환경운동단체로서의 활동 목적과 목표를 위한 활동' 즉, 녹색연합의 일반적인 환경보호활동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24명 활동가들의 인건비와 출장과 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목적사업비의 22%이상은 시민참여 영역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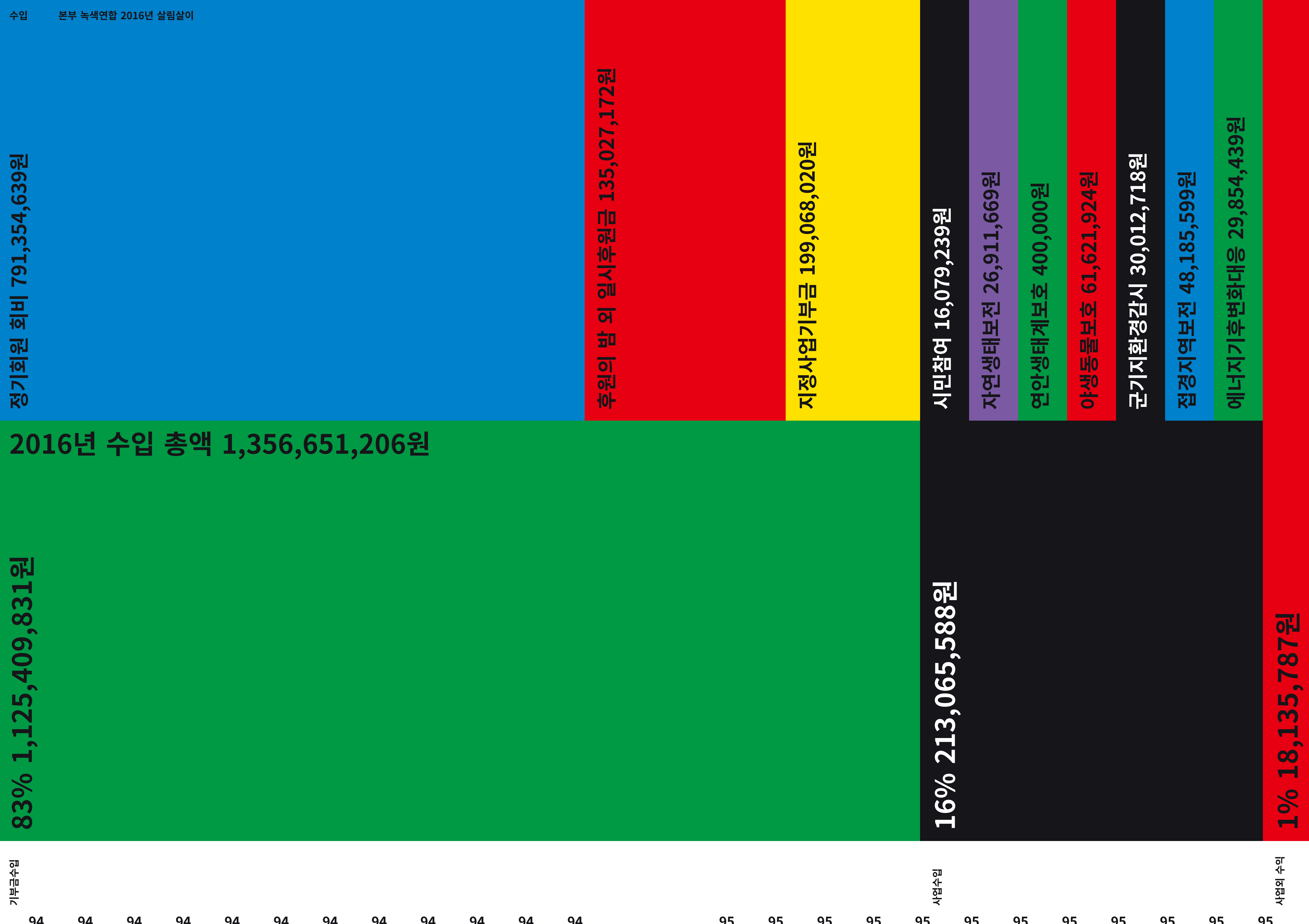
시민참여영역은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녹색희망 제작 및 발송비, 회원관리프로그램 이용료, 회원행사, 회원확대 등의 비용입니다. 운영비는 전체 활동가들의 워크숍과 교육, 조직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회의비용, 3%기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활동가 퇴직 시 단체재정의 부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도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당당히 환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녹색연합 회계투명성을 위한 노력

(1) 녹색연합은 재정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을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2) 해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회원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3) 해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4) 달마다 재정현황을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승인받고 있습니다.
(5) 주마다 회계담당자는 재정상황 주간보고서를 부서장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6) 모든 수입은 녹색연합 명의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모든 지출은 녹색연합 명의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과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8)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 각종 비용에 비용한도를 정하고 한도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합니다.
(9) 세무회계사무소 아웃소싱을 통해 법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2 92 92 92 92 92 92 92 92 92 92 92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수입
본부 녹색연합 2016년 살림살이
정기회원 회비 791,354,639원
후원의 밤 외 일시후원금 135,027,172원
지정사업기부금 199,068,020원
시민참여 16,079,239원
자연생태보전 26,911,669원
연안생태계보호 400,000원
야생동물보호 61,621,924원
군기지환경감시 30,012,718원
접경지역보전 48,185,599원
에너지기후변화대응 29,854,439원
2016년 수입 총액 1,356,651,206원
83% 1,125,409,831원
16% 213,065,588원
1% 18,135,787원
기부금수입
사업수입
사업외 수익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지출
본부 녹색연합 2016년 살림살
회원확대 35,358,042원
시민참여 211,977,898원
자연생태보전 49,481,778원
연안생태계보호 4,164,528원
야생동물보호 31,372,494원
군기지환경감시 28,521,390원
접경지역보전 35,777,974원
에너지기후변화 60,010,050원
정책운동비 32,887,000원
홍보운동비 10,440,560원
대외협력비 2,834,020원
목적사업인건비 471,707,221원
인건비 174,774,777원
복리후생비 53,951,586원
교육훈련비 27,923,326원
회의비 9,737,250원
지급임차료 11,206,274원
3%기금 15,307,100원
사무실운영비 43,374,863원
2016년 지출 총액 1,310,808,131원
74% 974,532,955원
26% 335,860,576원
목적사업비
운영비

회 계 감 사 보 고 서

사단법인 녹 색 연 합
회원 및 전국운영위원회 귀중

본 감사인은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사무처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비폭력 평화의 실현·녹색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자금의 집행과 수지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동기간의 수입·지출 결산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증빙대조 등 필요한 감사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감사 중 발견된 사항은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 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무사무처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별첨의 재무제표는 동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상황, 자산 및 부채 상태 및 운영 상황을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사무처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85-1 무림빌딩 3층

감 사·공 인 회 계 사 **김 종 화** ○

2017년 3월 1일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기 위한 녹색연합의 노력

녹색연합 신입활동가들은 수습교육 때 '녹색생활'을 배웁니다. 지구에 이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로서 더욱 알고 지켜야 할 녹색생활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신입활동가 교육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이나 분리수거, 에너지사용 문제를 종종 회의 주제로 삼아 녹색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녹색연합 활동가부터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꼼꼼한 분리수거

녹색연합 사무실에 없는 것, 첫 번째! 개인 휴지통입니다.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재활용품은 꼼꼼히 분리수거합니다. 종이는 백지, 신문지, 박스, 잡종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인쇄물의 철심은 일일이 제거하고, 고지서의 비닐도 다 떼어서 비닐로 분류합니다. 서류봉투는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둡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대부분 지렁이 퇴비더미에 버려 흙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에어컨과 난방기기가 없어요!

녹색연합 사무실에 없는 것, 두 번째! 에어컨과 난방기기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피크전력과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는 우리나라 발전소 증설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녹색연합은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여름을 나며 대신 너무 무더운 한여름엔 약 2주 동안 자율근무제를 실시합니다.

태양광으로 발전, 멀티탭으로 절전

녹색연합은 3층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각 층은 별도의 계량기를 달고 있는데 이 중 2층은 냉장고와 냉온수기가 있고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2층의 전기요금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바로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전기요금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고정 좌석이었던 근무형태를 노트북의 자유석으로 변경했고,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하고, 천정 조명등에 개별 스위치를 연결하고 멀티탭을 사용해서 대기전력을 줄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를 비거주 주택용 전기 3kW로 변경하면서 약 40명이 근무하는 3층 단독주택 건물 전체 전기요금이 월 2만 원 대 입니다.

재생종이, 이면지, 콩기름인쇄

녹색연합에서 제작하는 모든 인쇄물은 재생종이와 콩기름인쇄가 원칙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도 재생복사지를 사용합니다. 프린터를 사용할 때엔 꼭 출력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양면출력, 모아 찍기, 이면지 출력으로 종이 사용을 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천연세제

녹색연합이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선 간식 하나도 친환경 먹을거리로 준비합니다. 어린이자연학교나 녹색순례같은 행사에선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를 먼저 사용합니다. 또한 육류보다는 건강한 채식 식단을 준비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고기를 먹는 회식을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밀가루 푼 물이나 쌀뜨물을 사용합니다. 숙박을 하는 행사에서는 합성제품이 아닌 천연세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여러분 컵과 손수건 챙기셨나요?" 녹색연합에 전화를 걸면, 홍보대사 김미화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사무실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됩니다. 주방에 머그컵과 식기, 수저 등을 구비해두고 사무실 출입문 앞에 여분의 장바구니를 모아두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무실 생활뿐만 아니라, 행사나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컵을 쓰지 않기 위해 다회용 컵을 준비하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녹색연합 행사에서 종종 일회용 접시를 대신하는 뻥튀기 접시 보셨지요? 간식 먹고 접시까지 다 먹으면 끝!

지렁이가 살고 있는 텃밭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꼭 자랑하는 것이 마당에 조그맣게 마련된 텃밭입니다. 두 세 고랑 쯤 되는 곳에 토마토, 깻잎, 고추가 자라 점심에 톡톡 따먹습니다. 배추도 몇 포기 심어 김장도 했습니다. 이 텃밭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는 게 지렁이입니다. 텃밭 한쪽에 흙무덤을 만들어 지렁이가 살게 하고 채소나 과일껍질 등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좋은 거름이 되거든요. 햇살 좋은 날이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도심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느끼게 하는 곳, 녹색연합으로 놀러오세요.

제3자 검토 의견

alt.lab은 '녹색연합 지속가능성보고서-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 (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목적

본 검토 의견서는 녹색연합이 보고서를 통하여 밝힌 활동의 지속가능성 이슈 및 관련 정보가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기준 및 제한사항

alt.lab은 AA1000AS(2008) 검증표준을 참고하여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보고 원칙의 4대 항목(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중대성, 완전성)을 중심으로 보고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업무의 범위는 2016년 성과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 상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고서 세부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검토방법

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녹색연합이 제공한 관련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NPO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품질에 대한 작성 원칙 적용 여부
(2) 보고서 정보 수집 및 내용 작성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 확인
(3) 보고서 내에 기술된 내용의 적합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4) 지속가능성 이슈의 선정과 관련 정보 기술의 적절성 검토

검토 의견

alt.lab은 검토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대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 수정과정을 거쳤습니다. 수행한 검토 활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검토 의견을 밝힙니다.

(1) 이해관계자 포괄성: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조직이 그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녹색연합은 이해관계자와의 책임관계, 영향력, 의존도, 긴밀성, 관심도에 기초하여 회원 및 활동가, 지역조직, 연대조직, 협력파트너 등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주요한 소통과 공유 채널을 보고하였습니다.

— 녹색연합은 주요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회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원과 협력 파트너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 지속가능성 맥락: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하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가?

— 녹색연합은 금번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과 성과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보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중대성: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가?

— 녹색연합은 중요성 분석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주요 이슈를 선정하였고, 분석과정에 이해관계자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포함하였습니다.

— 녹색연합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기간 동안의 성과들을 공개하였습니다.

(4) 완전성: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고 보고기간 동안 조직의 성과를 이해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중대 측면과 그 경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 녹색연합은 조직의 영향력 범위를 고려하여 보고 내용을 정하였으며, 보고 기간 내의 주요 활동 성과 및 사회적 영향, 더 나은 미래(향후 계획)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

alt.lab은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1) 녹색연합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조직을 돌아보고, 단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공유와 소통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점이 돋보입니다. '더 나은 미래'라는 향후계획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이해관계자들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녹색연합이 성장할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공유와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2) 녹색연합이 2016년 수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담당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녹색연합의 고유목적과 강령에 어떻게 부합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서에서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녹색연합이 강령에 현재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기대되며 그 결과를 다음 보고서에는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녹색연합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입니다. 금번 보고서에서 조직의 내적 변화와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보고된 것 또한 의미있는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활동가가 성장하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환경 운동이 태동되는 좋은 시도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2017년 3월

alt.lab

서툰 첫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이제 우리가 걸어온 뒤를 돌아보니 작은 길 하나 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아직도 먼 듯이 느껴지지만, 쉬지 않고 힘차게 걷는 길 - 다시 돌아볼 그날엔 삐뚤거리지만 한 방향으로 뻗은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1991

¶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모임, 배달환경연구소 창립
¶ 민간단체최초 환경영향평가인 '금강 제2휴게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발표, 사업백지화 성공
¶ 푸른 한반도 환경평화 큰 마당
¶ 배달환경연구소, 환경을 살리는 전화 개설

1992

¶ 월간 '배달환경'발행
¶ '환경문제와 지방자치' 세미나 개최
¶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종합 환경성 조사

1993

¶ 전국조직인 배달환경클럽 결성
¶ 김포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조사결과 발표
¶ 반핵아시아 포럼 참가
¶ 한강을 살리는 연구 모임 활동

1994

¶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창립
(녹색당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모임, 배달환경연합)
¶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
¶ KBS 라디오와 4대강 환경 대탐사
¶ 10개국 아시아 환경단체회의, 아시아·태평양 환경운동가 워크샵 개최
¶ 민간최초 환경보고서,「94 한국환경보고서」 출간
¶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백지화 결정
¶ 환경단체 연대기구, '한국환경회의' 결성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 결성
¶ 환경뮤지컬 피피오 공연
¶ 녹색전사단, 정부물정책 규탄 직접행동

1995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동아시아 환경회의(남북환경회의, 태국 방콕)
¶ 김포 수도권 매립지 주민환경성 검토

1996

¶ '녹색연합'으로 명칭 변경
¶ 매주 녹색신문고 활동
¶ '깃대종을 살립시다' 캠페인 전개
¶ 남산 걷기대회 개최
¶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창간
¶ LG씨프린스호 해상기름유출사고 대책활동 전개
¶ 전국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 실시
¶ 녹색소비자 지침서 발간
¶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1997

¶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저지를 위한 대만현지 항의시위, 97년 12월 백지화
¶ 복제양 '돌리'탄생과 유전자 복제 반대 시위
¶ 백두대간 환경대탐사
¶ 강화도 남단 갯벌 생태계 조사
¶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대만 오존회의 참가
¶ 서울시 환경지도 제작
¶ 부산녹색연합 창립
¶ '생태마을 만들기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개최, 생태마을 만들기 활동 시작
¶ 녹색연합 충청본부 창립
¶ 야생동물보존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과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 수 조사

1998

¶ 제1회 녹색순례 '생명과 조화의 땅, 갯벌을 살리자'
¶ 광역자치단체 환경 친화도 조사
¶ 제1회 갯벌 교육자 양성을 위한 워크샵 (강화도)
¶ 제1회 청년생태학교 개최 (지리산)
¶ 생태마을 지침서 발간
¶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출범, 그린벨트 해체반대운동
¶ 금강산 관광 개발 문제점 발표

1999

¶ 낙동정맥 환경대탐사
¶ 환경소송센터 창립
¶ 군산미군지기 소음측정 조사
¶ 우유병 살리기 10만 인 선언운동 시작
¶ 강원지역 765kv 고압송전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서울 초안산 골프연습장 반대운동
¶ Buy Nothing Day 캠페인 진행
¶ 내복 입기 캠페인 진행
¶ 시민모임 '녹색친구들' 결성

2000

¶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 제기
¶ 시민모임 '야생동물소모임' 결성
¶ 광주전남녹색연합 창립
¶ 미8군(용산미군기지) 독극물 한강 무단 방출 사건 대응과 SOFA개정운동
¶ 『생태마을 길잡이』발간
¶ 문당리 생태마을 100년 계획서 발표
¶ 녹색연합 2000년 올해의 환경인상 수상 (환경기자클럽)

2001

¶ 녹색연합 야생동물 조사단 발족과 전국 밀렵실태조사
¶ 경북 울진군 왕피천 생태조사
¶ 공주녹색연합 창립
¶ 환경주간(4일~9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녹색연합 사무실 폐업'
¶ 시민모임 '생명운동공부모임'결성
¶ '백두산은 더 푸르게, 두만강은 더 맑게' 두만강 녹색순례
¶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방안에 관한 토론회
¶ 러시아 산양 탐사 '야생의 땅, 러시아를 찾아서'
¶ 학교급식 GMO 조사

2002

¶ 대구경북녹색연합 창립
¶ 낙남정맥 탐사와 밀렵도구 제거 캠페인
¶ 녹색 서울 만들기 10대 녹색공약 발표
¶ '종이 안 쓰는 날(No Paper Day)' 캠페인
¶ 백두대간 교과서 수록 제안
¶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삼보 일배
¶ 한강하구 생태조사
¶ 태풍 루사 수해 피해지역 조사 보고서 발표
¶ 지리산 산청 양수 발전소 송전선로 피해지역 조사
¶ 한강정맥 환경탐사

2003

¶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캠페인
¶ 백두대간보호법 입법 청원활동
¶ 새만금 4공구 해수유통 촉구 활동
¶ 해양생태계 교육자 양성과정
¶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04

¶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승소
¶ 시민모임 녹색친구들과 밀렵방지캠페인
¶ 경부고속철 환경피해 현장 보고
¶ 백령도 물범 조사 시작
¶ 도룡뇽 소송인단 100만 인 모집을 위한 거리 서명 캠페인
¶ 새만금 권역 해안선 실태 조사
¶ 꼬리치레도롱뇽 멸종위기종 지정 청원 공식 발표
¶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간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3차 당사국총회에 참가
¶ 사육곰 도살 10년 연한 및 웅담 합법화 반대 집회 및 거리서명 캠페인
¶ 원주녹색연합 창립

2005

¶ 제1회 전국 녹색연합 회원총회
¶ 전국 23개 지역 28개 환경파괴현장 초록행동단 순례 시작
¶ '국가 지도에 백두대간 표기하기' 대 시민 서명 캠페인
¶ 부산 명지대교 강행규탄 집회
¶ 남해안 해안선 조사
¶ 고래보호캠페인 '춤추는 고래버스' 운영과 IWCA 총회 참가
¶ 명지대교 건설저지와 낙동강하구 습지보호를 위해 전국 녹색연합 총력 투쟁
¶ 호남정맥 462km 환경대탐사 결과 보고
¶ 주부모임 옛사름과 『자연을 담은 소박한 밥상』출간
¶ 도로 중복투자로 5조 4천억의 예산 낭비 현황 발표
¶ 전국 해안림 현황조사보고서 '재해를 막는 숲, 해안림이 사라지고 있다' 발표

2006

¶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발표
¶ 시민모임 녹색친구들, 『한북정맥환경실태보고서』 발간
¶ 한강 생태복원 정책토론회
¶ 점박이 물범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 주부모임 옛사름과 『자연을 담은 사계절 밥상』 출간
¶ 환경소송센터, 서울 대기오염소송 시작
¶ 창립15주년기념포럼, '녹색을 향한 지역발전모색과 환경운동의 과제' 개최
¶ 15주년기념사업, 환경문화축제-'불어라 녹색바람' 진행

2007

¶ 제2회 전국 녹색연합 회원총회
¶ 양식장 포르말린 사용 정책 중단 촉구 캠페인
¶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 쓰기 문화운동
¶ 개성공단 오폐수로 국제적 생태계보고 DMZ 오염 피해 발표
¶ 관광객 없는 관광도로, 개발촉진지구 예산낭비 실태 발표
¶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해『곰아 미안해』콘서트
¶ 서울시 지자체별 CO_2배출특성 결과 발표
¶ 삼성중공업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대응활동
¶ 녹색교육센터 창립

녹색인문학 교육

1991년~2016년

2008

¶ 경부운하 건설시 생태계피해 예측보고서 발표와 한반도대운하 반대활동
¶ 삼성중공업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공식 사과 촉구와 피해주민 보상 긴급 시민행동
¶ 기후변화 대응, 대학이 나설 때다- 국내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 중 대학 23곳 발표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대책위 활동
¶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최초 발간
¶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실태 조사 발표
¶ 에너지자립마을, 대안에너지 학교 조성활동
¶ 서울 성곽 순례길 조사와 순례지도 발간
¶ 비무장지대 일원 환경실태보고서 『DMZ 155마일을 걷다』발간

2009

¶ 제3회 전국 녹색연합 회원총회
¶ 4대강 토목사업 반대 운동
¶ 전북녹색연합 창립
¶ 국정교과서를 재생종이로 릴레이 캠페인
¶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을 위한 1인 시위와 사회인사 100인 선언
¶ 대안에너지 입지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제1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참가
¶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울진 숲길 조성
¶ 군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제세미나
¶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 시범 사업

2010

¶ 4대강 개발 사업 반대운동
¶ 광양만녹색연합 창립
¶ 6.15 지방선거 대응과 유권자희망연대 활동
¶ 서울시 하천생태복원 현황 조사활동
¶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
¶ UN 생물종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개통
¶『서울 성곽 걷기 여행』출판
¶ 양서류국제심포지엄 개최
¶ DMZ 일원 지뢰현황조사
¶『에너지자립마을을 위한 지침서』출간
¶ 종이는 숲입니다 캠페인으로 국정교과서 재생종이 출간 결정
¶ 제1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참가
¶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

2011

¶ 제4회 전국 녹색연합 회원총회
¶ 멸종위기종 산양 구조 활동
¶ 강원도 골프장 건설 대응 활동
¶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과 탈핵 운동
¶ 4대강 지류지천 조사, 여름 장마기 집중 모니터링
¶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추가 개장
¶ 미군 캠프캐럴 고엽제 불법매립 대응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활동
¶ 그린캠퍼스 활동과 공모전 개최
¶ 녹색성북네트워크 활동과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결성
¶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가리왕산 스키슬로프 대안 마련 활동
¶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운동
¶ 그린컨퍼런스 '전환의 상상력'개최
¶ 녹색인문학 1기 강좌 개최
¶ '국토 보호구역의 성찰과 미래' 심포지엄
¶ 자원 활동가가 만드는 재생종이 캠페인 소식지 『RE:잃이』발간
¶ 20주년 기념 책 『아름다운 지구인』 출간

2012

¶ 회원과 함께 '월운리 생물종 탐사 대작전'
¶ 녹색인문학 강좌 2기
¶ 그린컨퍼런스 2012 '생태적 삶의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강원도 골프장 반대활동과 '함께 가요 생명버스' 운영
¶ 후쿠시마 사고 1주기 활동과 탈핵강사 양성
¶ 녹색성북네트워크 햇살씨앗 절전소 활동
¶ 사찰림 보호구역 지정활동
¶ 평창 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슬로프 건설 반대활동
¶ 전국 걷는 길 실태조사와 지속가능한 걷는 길 토론회 진행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대응활동
¶ 울진 삼척 산양 모니터링 활동과 야생동물 탐사단 운영
¶ 4대강 '녹조 라떼'현상 모니터링과 정책대응 활동
¶ 설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운동
¶ '보호구역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 '탈토건사회로의 모색' 토론회
¶ 제5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녹색연합 비전 만들기 '함께 Green 다음 지도' 전국회원워크숍
¶ 생태동화책 『점박이물범, 내년에도 꼭 만나』 발간

2013

¶ 제5회 전국 녹색연합 회원총회
¶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대응활동
¶ 재생에너지 설비 제작 워크숍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성북 절전소 운영
¶ 백두대간보호법 10년의 성찰과 대안, 심포지엄 개최
¶ 울진·삼척 산양 서식현황 GIS 분석 발표
¶ 전국 생태탐방로 전수 조사와 정책제언
¶ DMZ 전체 면적 현황 조사 발표
¶ 4대강 수질 모니터링과 책임자 고발
¶ 대형 댐 건설 예정지역 생태조사
¶ 중앙정부 예산감시와 난개발 사업 예산 삭감 활동
¶ 강원도 골프장 반대 운동(구정리, 갈마곡리, 월운리 계획 취소 결정)
¶ 회원과 함께 '울진 생물종 탐사 대작전'
¶ 설악 대청봉 케이블카 반대활동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부결
¶ 사육곰 정책 폐지활동과 사육곰 보담이 구출하기 모금 운동
¶ 제주 강정 앞바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연산호 영향조사 보고서
¶ 봄/가을 학기 녹색아카데미
¶ 그린컨퍼런스 2013 '전 지구적 연애'
¶ 생태동화책 『하늘다람쥐, 집 걱정은 하지 마』, 『산양들아 잘 잤니?』 발간

2014

¶ 생태동화책 『맹꽁이야 이제 넌 어디서 살아』 발간
¶ 회룡포 여울마을 생물종대탐사 진행
¶ 녹색아카데미 – 녹색인문학, 젬베, 생태철학, 생태드로잉
¶ 활동가 강연 프로그램 ‘그린라이트’ 개최
¶ 정부 규제완화 정책 대응활동
¶ 성북구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 등 절전소 운동
¶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노후핵발전소 폐쇄 “고마가라 고리 1호기” 운동
¶ 세월호 참사 시민사회단체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
¶ 울진 폭설 기간 산양 구조 활동과 상시 모니터링
¶ 강원도 인제터널 양서류 모니터링과 양서류 보호 전략 워크샵
¶ 보령 군기지 주민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4대강 사업 3년 후 변화 모니터링, ‘Free The River, 4대강 사업의 진실’ 발간
¶ 평창 생물다양성 협약(CBD) 총회 COP 12 대응활동
¶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반대활동

2015

¶ 제 6회 회원총회 개최
¶ 백두대간 보호구역 마룻금 등산로 훼손실태 조사
¶ 녹색시민포럼 ‘녹색시민의 시민됨을 위하여’ 개최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실험 대응활동
¶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참가
¶ 우르과이,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 전국 기업환경사고 실태를 담은 환경오염지도 제작
¶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진행
¶ 에너지 가득한 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
¶ 성북, 서대문구, 서초구 등 지자체 에너지 전환 활동
¶ 경희대·동대문구와 청소년 기후캠프 개최
¶ 탈핵영화 ‘30Km’ 제작
¶ 핵노답 포스터 공모전
¶ 서해 5도 접경지역 생물상·주민 생활상 조사와 지도 발간
¶ 4대강 현장 모니터링
¶ 사육곰 중성화 과정 모니터링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활동
¶ 서울 근교 로드킬 현황 조사

2016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저지 운동, 문화재 위원회 심의에서 케이블카 사업 부결
¶ 울진산양구조치료센터 부지매입비, 울진군 예산 반영
¶ 백두대간 훼손지 조사 발표 후 산림청 대책 수립 발표
¶ 고산침엽수 고사 실태 조사 발표
¶ 서울시 주요 등산로 조사
¶ DMZ 자생식물원 교육프로그램 연구
¶ 사육곰 중성화 수술 모니터링
¶ 전국녹색연합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캠페인
¶ 4대강 재자연화 포럼
¶ 용산기지 내부오염 조사 결과 정보 공개 소송 승소
¶ 제주 강정 연산호 정기 모터링과 국제워크숍 개최
¶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
¶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활동
¶ 성북구 학교 · 주민커뮤니티 절전소 활동, 서초구 절전소 활동
¶ 제4회 도시형 에너지생활기술 공모전
¶ 10년 회원 만남 ‘밥 한 번 먹어요’
¶ 26주년 기념 후원행사 ‘피할 수 없다면 녹색’
¶ 전직 활동가 홈커밍 데이
¶ 예술가와 협업하여 남한산성면 로드킬 제로 캠페인

02879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113-34번지)
02. 747. 8500 전화
02. 766. 4180 팩스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